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ear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슈퍼볼 MVP로 선정된 탐 브레디(사진 가운데)가 백업 선수인 지미 거라폴로(왼쪽), 자코비 브리셋(오른쪽)과 함께 등장하자 시민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보스톤 미술관 설날 축제 갈수록 인기높아

올해 관객 1만여 명 방문해 작년보다 늘어 관객들에게 세배와 한복 소개로 큰 호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미술관(Museum of Fine Arts Boston)이 주최한 음력 설날 축제에 행사 당일 9,690명의 관람객이 입장하는 기록을 세우는 등 설날 축제의 인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보스톤 미술관과 한미예술협회 및 중국과 베트남의 문화 단체들이 협력하여 2월 4일 개최한 이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었다. 이날 방문객들은 무료로 미술관 전체를 둘러보며 예술품을 감상하는 동시에 아시아 3개국의 설날 문화를 배우고 즐기는 특혜를 누렸다.

한국 설날 시연에서는 오전 11시, 오후 1시, 3시 3회에 걸쳐 세배 시범(Saebae Demonstration)을 보여 많은 방문객의 눈길을 끌었다. 조연민씨의 사회로 안길남-안동희씨 부부와 뉴잉글랜드한국학교의 김진아-김희현 교사의 가족이 세배 시범을 보였다. 이후에는 방문객들이 한복을 직접 입어보고 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5면으로 계속

'역사적 승리현장에 참여' 몰려든 군중들

보스토티안, 폭설 얼음비 아랑곳, 수업 빠진 어린이들까지 탐 브레디 등장 분위기 최고조, 제임스 화이트도 환호받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폭설과 비도 믿기지 않는 역사적 승리를 이룩한 패트리엇츠의 슈퍼볼 우승 퍼레이드의 열기를 막을 수 없었다. 지난 7일 열린 우승 퍼레이드는 푸르덴셜 센터에서 카플리 광장과 파크 스트리트를 지나 시

청 광장까지 이어져 주변 일대는 밀려든 인파로 마비가 되었다. 아침부터 내린 눈은 퍼레이드가 시작된 11시께 눈비로 바뀌어 군중들을 추위에 떨게 했지만, 위대한 순간에 참여하겠다는 시민들의 열기를 식힐 수는 없었다.

눈비에 떨며 기다리던 팬들은 패트리엇츠의 선수단이 탑승한 덕 투어 >>3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a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 출발
한국행항공권 \$850~

KOREA JAPAN PACKAGE

한국방문길에 도쿄여행도 즐긴다!
왕복항공권(한국행 포함)
미국 내 유류사과, 일본 공항여객기에서 무료입장권

\$1,890~

IACE TRAVEL 문의전화
1.617.424.8956
1.866.619.4223

웹사이트 : www.iace-korea.com
이메일 : info@iace-korea.com
영업시간 : 월-금 12PM-9PM (휴일/공휴일 제외)



Dr. 닥터스통증병원

"통증" 참지 마세요
해답은
닥터스통증병원에서

617.731.1001
617.566.1199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FOR SALE:
DRY CLEANER

- WORCESTER MA AREA
- LONG ESTABLISHED
- RUN BY HUSBAND & WIFE
- WANT TO RETIRE
- PRICED FAIR
- WILL FINANCE BUYER
- GEORGE & COMPANY

CALL BROKER : JEFF LEFEBVRE
Tel. 508 864 4658
Email: JeffL@georgeandco.com

패트리어츠 사상 최고 역전승, 슈퍼볼 역사 다시 썼다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장명술 = 어느샌가 승패보다는 게임의 흐름에 더 재미를 느끼게 된 것은 행운이었다. 이런 슈퍼볼 경기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물을 정도로 흥미로운 게임을 끝까지 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탓이다. 2월 5일 51회 슈퍼볼에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는 역사상 최고라 불릴만한 역전극을 펼치며 슈퍼볼 챔피언에 등극했다.

휴스턴의 NRG 스타디움에서 열린 슈퍼볼 경기는 경기가 끝난 후에도 어떻게 패트리어츠가 이겼는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경기가 끝났지만 TV앞을 쉽게 떠나지 못했다. TV 화면으로 비치는 운동장에 선수들 역시 떠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패트리어츠 선수들과 애들란타 선수들의 차이는 확연히 달랐다. 그동안 패트리어츠는 4번의 슈퍼볼 우승 등 수많은 것을 이뤄왔지만 이 정도의 비현실적인 역전승은 없었다. 최종 결과는 연장전까지 승부 끝에 34대 28이었다.

사실 3쿼터 8분여를 남겨두고 28대 3의 스코어로 벌어지면서 상당수의 한인들은 TV를 끄고 잠을 청했다. 충분히 그럴만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팬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풋볼 그라운드에서 뛰는 패트리어츠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은 그

저에는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같이 운동하는 동료 선수에 대한 신뢰가 함께 했다. 그렇게 역전의 역사는 시작됐다.

패트리어츠는 3쿼터 2분여를 남겨두고 마침내 첫 터치다운을 기록했다. 그러나 2쿼터에서 63야드의 필드골을 성공시켰던 고우토우스키는 추가점 필드골을 오른쪽 골포스트를 맞추며 실패해 막 살아나려는 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했다. 이번 슈퍼볼은 '정말 안 풀리는구나' 라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사실상 이날 경기중 전반전은 더 나빴다. 탐 브래디와 빌 벨러직 콤보로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는 딱 두번의 슈퍼볼 경기를 패배했다. 공교롭게도 두 번 모두 뉴욕 자이언츠. 비록 이팀에게 패배하기는 했지만 이처럼 처참하지 않았다.

뉴욕 자이언츠가 패트리어츠를 공략했던 전략은 탐 브래디를 접하는 팀의 교본이 될 정도다. '쿼터백 브래디를 흔들어야' 가 그것이다. 초반부터 집중 블리츠, 패스 러시 등을 통해 공략하여 서두르게 하고 쿼터백 포켓에서 쉽게 공을 던지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말은 쉽지만 이것을 실행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껏 탐 브래디는 NFL 정규게임 최다승을 기록할



이번 슈퍼볼의 역전은 The Come Back이란 대명사로 불릴 수도 있다. 탐 브래디도 The Greatest QB으로 대명사화할 수 있다

수 있었다.

약체로 평가됐던 애들란타 팰콘스의 수비는 그러나 뉴욕 자이언츠의 모델을 현실화 했다. NFL 사상 최고의 쿼터백이라 해도 무방한 브래디는 몇 차례나 쿼터백 색을 당했다. 패스를 서둘러야만 했던 것은 물론 결코 쉬운 패스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로 인한 결과는 컸다. 비록 브래디가 흔들린 것은 아니었지만 애들란타의 수비는 단연 돋보였다.

2쿼터 라게렛 블라운트의 펌블은 최

소한 3점을 안고 시작할 수 있었던 게임을 7점차 리드를 당하게 만들었다. 결정적으로 브래디는 14대 0으로 뒤지고 있는 가운데 이중 수비가 막고 있던 아멘돌라에게 직선패스를 감행하다 무려 84야드 인터셉션 리턴 터치다운까지 내주면서 경기의 흐름을 애들란타에 헌납했다. 21대 0. 싸늘하고 어두운 분위기가 패트리어츠 팀 벤치를 휘감았다.

이 같은 결과를 창출한 것은 애들란타 팰콘스의 2년차 감독 댄 퀸이다. 올해 애들란타 팰콘스 젊은 선수들의 수비는 2년전 시애틀 시호크스의 수비와 아주 유사했다. 댄 퀸이 바로 당시 시호크스의 디펜시브코디네이터였기 때문이다.

다시 4쿼터로 돌아가자. 정말로 안 풀릴 것 같던 경기는 돈타 하이타워의 애들란타 쿼터백이자 올해 정규시즌 MVP인 맷 라이언의 펌블 유도로 조금 방향을 틀었다. 이처럼 애들란타 공격이 약간 주춤하는 사이 브래디와 패트리어츠는 정말 하나씩, 하나씩, 점수를 쌓아갔고 4쿼터가 끝날 무렵에는 어느새 28-28 동점이 되어 있었다. 말은 쉽지만 정말 실행은 힘든 것을 해낸 애들란타 수비처럼 패트리어츠 공격도 상상하기 힘든 동점상황을 만들었다.

슈퍼볼 사상 후반전 10점 이상 뒤진

팀은 단 한번도 경기를 뒤집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패트리어츠는 25점이란 어마어마한 점수차를 극복해 버렸다.

"우리 모두는 남은 생애 이 순간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한 뉴잉글랜드 쿼터백 탐 브래디는 5번째 슈퍼볼 우승을 기록한 유일한 쿼터백이 됐다. 벨러직도 5번째 우승을 이끈 유일한 감독이 됐다. 패트리어츠도 달라스 카우보이스와 그린베이 팩서스와 함께 최다 슈퍼볼 우승 공동 2위를 기록하며 1위 스틸러스에게 단 한 슈퍼볼 우승을 남겨 두게 됐다.

탐브래디는 전반전만 해도 쿼터백 패서레이팅이 60점대로 개인적으로 최악의 기록이었지만 4쿼터 쿼터백이란 평가에 걸맞게 4쿼터에만 엄청난 패시야드를 기록하며 62시도에 43 패스 성공, 총 466야드로 종전 커트 워너의 최다 야드 기록마저 갱신해 버렸다.

이번 슈퍼볼의 역전은 The Come Back이란 대명사로 불릴 수도 있다. 탐 브래디도 The Greatest QB으로 대명사화할 수 있다. 이 같은 모든 것을 이루는 첫 걸음은 모두가 포기할 순간에 시작됐다. 늦었다고 후회하는 독자가 있다면 슈퍼볼 게임을 다시 볼 것을 권하고 싶다.

editor@bostonkorea.com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 보철 전문
-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패트리어드 우승퍼레이드 폭설에도 열광의 도가니

▶▶ 1면에 이어서

버스(Duck Tour Bus)가 나타나자 폭발적인 환호로 선수들을 맞이했다. 퍼레이드 차량행렬에 탄 선수들은 열정적인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내며 함께 승리의 감격을 나눴다.

퍼레이드 행렬은 구단주 로버트 크래프트와 사장 조나단 크래프트의 차량으로 시작되었다. 크래프트 일행은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를 들고 나타나 시민들의 환호에 응답했다. 빌 벨리치 감독, 조시 맥다니엘 코치, 맷 패트리야코치가 탄 차량이 뒤를 이었고, 말콤 버틀러, 로건 라이언, 데빈 맥코틴, 패트릭 청 등이 탑승한 대형 트럭이 지나가자 패트리어드의 최고 스타 탐브래디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슈퍼볼대회 MVP로 선정된 쿼터백 탐 브래디는 백업 쿼터백인 지미 거라폴로, 자코비 브리셋과 함께 등장했다. 고 프로를 들고 있는 거라폴로와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 레프리카를 든 브리셋 사이에 조용하게 서있던 탐 브래디는 팬들이 탐 브래디를 큰 소리로 연호하자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며 팬들의 함성에

화답했다.

이어 연장전 터치다운의 주인공 제임스 화이트와 롭 그론카우스키, 크리스 호건 등의 선수들이 탑승한 차량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흥겨운 음악과 함께 등장해 팬들과 인사를 나누며 축제를 즐겼다. 몇몇 선수들은 트레일러 위에 올라가 음악에 맞서 춤을 추는 등 우승의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했다.

퍼레이드에 참석한 니 씨는 “우리의 우승을 방해하는 시련(디플레이트게이트)이 있었지만 우리가 명백한 우승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증명했다”며 환호했다. 또 한명의 일반인은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는 사실을 눈으로 목격한 슈퍼볼이었다”며 “기적을 이뤄낸 최고의 전사들을 위해 눈과 비파윈 아무렇지 않다”며 도로를 막기 위해 주차된 트럭위로 올라갔다.

건물 안에서도 수많은 팬들도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창가로 모여 들었다. 시청 옆에 위치한 서퓸 대학교 학생들 중 한 학생은 ‘내 등록금은 이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쓰였다’



부모의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도, 지팡이를 짚고 나온 노인들도 이날 하루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는 플랜카드를 내걸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퍼레이드 직후 좁은 길을 한꺼번에 빠져나가던 행렬들 사이에서 폭력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도로위에 남은 쓰레기들이 빗물에 섞여 일부 차선이 통제되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

디플레이트 게이트 이후 두 시즌 만에 다시 우승컵을 거머쥔 패트리어드

는 지난 5일 휴스턴의 NRG 스타디움에서 열린 슈퍼볼 대회에서 NFC 우승팀 애틀랜타 팰컨스와 대결했다. 패트리어드는 후반전 25점까지 벌어진 점수 차를 극복하고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34 대 28로 꺾으며 슈퍼볼 역사상 유래 없는 대역전 드라마를 이뤄냈다.



관련 사진 12면에 계속

itshunne@bostonkorea.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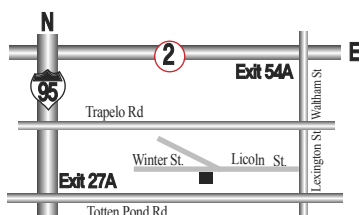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SAT Plus Fall Schedule 2016

Saturday Class Start September 10, 2016

Class	Time	
PSAT / SAT prep	9:00 AM – 11:00 AM	11th Grade
SAT prep	11:30 AM – 1:00 PM	10th Grade
SAT prep	1:30 PM – 3:00 PM	9th Grade
SAT I prep	4:00 PM – 6:00 PM	12th Grade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한국문학 영어로 소개하는 웹진 오픈

매사추세츠민간한국문화원 코리아리트닷컴 오픈 한글과 영어로 한국문학소개, 한글학교 및 도서관도 운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개미들의 힘’이라 불리는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한국 문학을 영어로 세계에 알리는 운동을 보스톤, 매사추세츠를 중심으로 시작했다.

매사추세츠민간한국문화원(KOREAN CULTURAL SERVICE OF MASSACHUSETTS)은 한국문학을 영문으로 번역해 소개하는 웹진 코리아리트닷컴(Koreanlit.com)을 1월 31일 개장했다. 문화원은 2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문학이 여러 나라의 문학과 다양한 모습으로 섞이기를

바라는 마음에” 서 한국 최초의 영문 한국문학 소개 웹진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코리아리트닷컴에는 이재무 시인의 <갑나му>, 한혜영 시인의 <상상하는 고양이>, 장석주 시인의 <밥>, 권순자 시인의 <위안부1> 등의 시가 한글 시와 영문시로 나란히 올라가 있다. 사이트에 등록된 작가는 벌써 10명에 달한다.

매사추세츠민간문화원장 유희주 시인은 한국 문학을 영어로 소개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미국의 박물관에 느끼는 한국을 예로 들었다. “모국에 대한 자긍심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가운데 갖게 됩니다. <중략> 박물관에 가면 마음이 늘 착잡합니다. 미국 박물관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미미합니다” 라는 것이다.

박물관 뿐만 아니라 서점에 가도 그 착잡함은 여전하다. 한국문학 번역 소설은 물론 한국에 관한 서적 역시 미미하다. 유희주 시인은 “가볍지만 깊이 있게 포괄적으로 영어권에 문학을 소개할 수는 없을까” 를 고민하다 영문 한국문학 웹진을 떠올리게 됐다. 이후



Korean Cultural Service of Massachusetts 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한국 현대문학을 세계로 - koreanlit.com] 의 영문 웹진

일년동안 이 일에 매달려 작가와 번역가를 찾아내어 지금의 웹진을 출발시켰다.

번역은 자원봉사자인 전승희, 고유진, 권순희, 매튜, 임옥, 이화현, 권순자, UMASS번역팀이 맡고 있다. 이들은 “생업에 무리를 주지 않는 한도내에서 조금씩 자신의 열정과 능력을 기부했다”

영문 한국문학웹진의 첫걸음을 내딛은 매사추세츠민간한국문화원은 이제 인터넷 공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도 진출한다. 올해 가을에는 매사추세츠 웰슬리 소재 웰슬리 대학에서 고유

진 교수의 진행으로 시낭송회를 개최한다. 이때는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의 문학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한국문학을 세계로” 를 기치로 내건 매사추세츠민간한국문화원은 우선 시에서 출발하지만 문학 전반으로 그 발걸음을 넓힐 계획이다. 이곳을 통해 미국 내 시인들 또한 한국에 소개할 예정이다. 매사추세츠민간한국문화원 2013년 9월 매사추세츠 오렌지에 매사추세츠 한국도서관을 건립하며 결성됐다. 이들은 미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북미한인대학교수협회 장학금 신청마감 28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북미한인대학교수협회(KAUPA)는 창설 30주년을 맞아 2017년 장학생을 모집한다. 교수협회는 미국과 캐나다에의 대학에서 공부를 원하는 학생 2명을 선발해 각 \$1,500의 장학금을 수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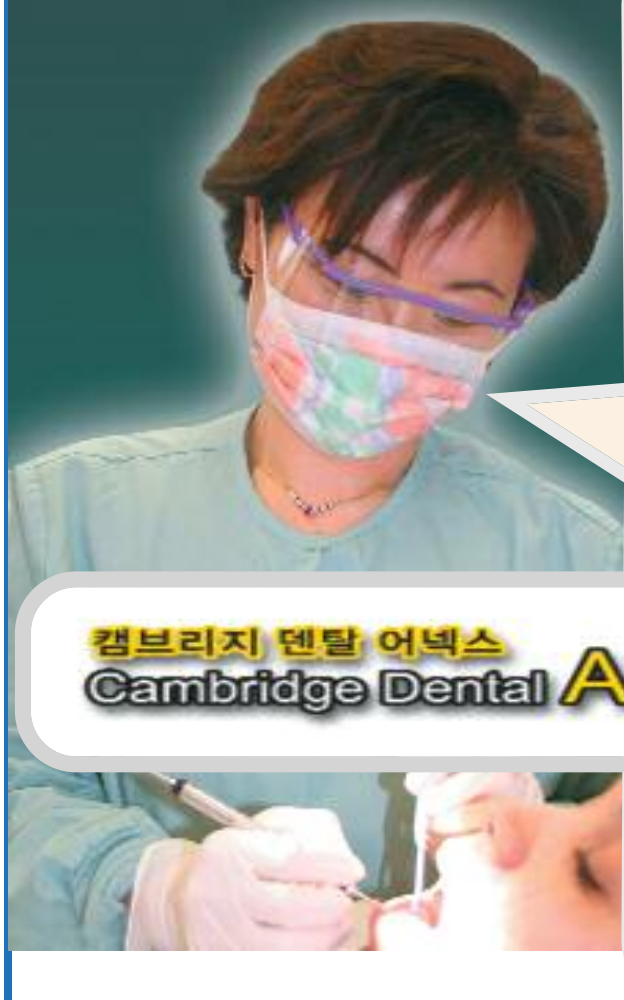
이 장학금은 한국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장학금은 장학위원회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장학금 신청서는 북미한인대학교수협회(www.kaupa.com)에서 다운로드하면 되며 기입된 신청서와 1통의 추천서를 이메일로 2월 28일까지 발송하면 된다. 문의는 강기범 교수(npstk@yahoo.com)에게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매사추세츠민간문화원장 유희주 시인은 한국 문학을 영어로 소개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미국의 박물관에 느끼는 한국을 예로 들었다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면역력이 답이다!

면역력은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에 저항하는 힘이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에 취약해지고, 자가면역 질환, 염증성 질환, 암까지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홍삼은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죽여 없애는 대식세포를 촉진해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

정관장이 답이다!

KGC인삼공사의 정관장 홍삼은 100% 국내 인삼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한 원료 관리와 7회 이상의 철저한 안정성 관리로 고객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무료증정

FREE GIFT \$31 상당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BURLINGTON I/MART

전화 주문 781-238-0303
FedEx \$100 이상 구입시 무료배송

박물관도 관람, 설날도 즐기고...

▶▶1면에 이어서

외국인들은 한복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사진을 찍고 질문을 했으며 보스턴에서 한복 구입이 가능한지 묻기도 했다. 한미예술협회 관계자는 “외국인들에게는 한복의 아름다움과 풍습을 알리고, 한인 자녀들에게는 세배에 대해 교육하는 좋은 기회이었다” 고 밝혔다.

엄성준 보스턴 총영사는 세배 시연을 방문하여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기념품을 기부했다. 달력, 복주머니, 셀폰 고리 등의 기념품은 많은 방문객의 인기를 얻었다.

한편 가야금 주자 김도연과 피아니스트 체이스 모린(Chase Morrin)으로 구성된 듀오 Gapi는 레미스 오디토리움(Remis Auditorium)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400여 석을 꽉 채운 관중들은 한시간 동안 동요 '까치까치 설날', '자장가' 등 귀에 익은 멜로디로 만든 즉흥곡 외에도 다수의 곡을 감상하고 갈채를 보냈다. 이외에도 복주머니 만들기, 중국의 사자춤과 쿵후 시범 등은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함께 진행되었다.

보스턴 미술관에서 자원봉사 및 커뮤니티 참여 디렉터로 일하는 린다 애플(Linda Apple)씨는 전년도에 비해 방문객이 31%나 증가한 것



한국 설날 시연에서는 오전 11시, 오후 1시, 3시 3회에 걸쳐 세배 시범(Saebae Demonstration)을 보여 많은 방문객의 눈길을 끌었다 (사진제공: 전부희)

에 큰 놀라움과 만족을 표하며 한미 예술협회와 한인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내년에도 이 행사를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김병국 한미예술협회 회장은 “가구 및 병풍을 운반하고 하루 종일 세배 시연과 한복 입는 것을 도와준 많은 봉사자들, 그리고 많은 한복을

대여해 주신 뉴햄프셔 한인회의 조은경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 말하고 “이렇게 한국의 문화와 풍습을 자연스럽게 미국 사회에 소개하고 교육하는 것이 한인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소망을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2월 18일 무료진료 및 독감 예방 접종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 새생활센터는 2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비롯해 내과 진료, 치과진료 그리고 건강 상담을 실시한다.

내과는 진료 후 처방전을 무료로 발행하고 치과는 검사 및 예방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별한 예약없이 환자들이 도착하는 순서대로 진찰을 진행한다.

이날 진료에서 당뇨병 검사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을 원하는 한인들은 아침을 굶고 약아 정확한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다. 또한 더욱더 정확한 건강 상담을 위해 BMI(Body Mass Index)나 체내에 체지방 검사도 받을 수 있다.

보스턴 새생활센터의 무료진료는 한인 이민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진료를 원하는 한인들은 스톤햄 소재 보스턴새생활센터(4 Spring St., Stoneham, MA)를 방문하면 된다. 진료에 관한 문의는 송연호 보스턴새생활센터대표(317-374-4786)에게 할 수 있다.

무료 진료 시간 : 2월 18일 오후 2시~4시
주최 및 무료 진료 안내 : 보스턴 새생활센터/대표: 송연호(전화 : 317-374-4786)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턴코리아 BOSTONKOREA.COM

영역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턴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영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류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턴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뛰고 달리고 땀 흘리며 배운 탈북자 문제

북한 인권문제 동아리 LINK 보스턴대학 지부, 런닝맨 게임 개최
인기 TV쇼 테마로 각종 게임 즐기고 북한 난민 프리젠테이션 시청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김시훈 기자 = 한류와 탈북자 문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주제를 가진 이벤트가 한 자리에서 열렸다. 보스턴대학교(이하 BU)의 북한 인권문제 동아리가 탈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빌딩 한 채를 통째로 빌려 런닝맨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3일, BU의 북한 인권문제 동아리 링크(Liberty in North Korea, 회장 홍수은)는 BU의 CGS(College of General Study)에서 외국 한류팬에게 가장 인기있는 TV 프로그램인 '런닝맨'을 주제로 이벤트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영킨 손 풀기, 릴레이 빨리먹기, 눈가리고 술래잡기, 레몬에이드 마신 사람 찾기 등 친해지기 위한 사전 게임을 진행했다. 게임을 통해 서로 다른 나이와 성별, 인종과 배경으로 어색해하던 참가자들은 이내 친구가 되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였던 이름표 뜯기 게임은 CGS의 5층 건물 전체를 무대로 진행되었다. 5인 1조, 5개 팀으로 나뉜 참가자들은 인터넷으로만 보던

한국의 인기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게임을 즐겼다. 각 팀 참가자들은 상대팀의 이름표를 뜯기 위해 전략을 짜고, 때로는 런닝맨 출연자들 못지않은 육탄전을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게임에 임하며 런닝맨의 주인공이 된 기분을 만끽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링크는 런닝맨 행사가 끝난 후 행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탈북자 관련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프리젠테이션은 탈북자 이현서 씨가 2013년 롱비치에서 열린 테드(Ted.com) 강연에서 '북한으로부터의 탈출'을 주제로 발표했던 영상으로 시작되었다.

영상 프리젠테이션 이후 홍수은 회장의 부연설명과 함께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약30여 명의 참가자들은 '한국 사람들은 탈북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한국은 탈북자를 수용하는데 어느만큼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문제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나?' 등의 질문을 쏟아내며 탈북자 인

권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평소 런닝맨 등 한류에 관심이 많다는 참가자 윌리엄 던(컴퓨터 정보공학과 석사과정)씨는 "팀 메이트에 의존하는 협동 게임이 많아 재밌었다"고 말했다. 그는 탈북자 프리젠테이션에 관해서도 "이전부터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경험한 고통을 들었지만 그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 얼마나 긴 여정과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은 알지 못했다"며 "즐거움과 배움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즐거워했다.

링크의 홍수은 회장은 "탈북자 문제를 일생생활에서 논의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 재미있는 이벤트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링크는 BU 내에서 갑박, 짜장면을 팔거나, 비빔밥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는 등의 문화행사를 개최하며 탈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왔었다. 링크는 5월 정도에 탈북자 문제를 환기시키기 위한 더 큰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링크는 2004년,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 중인 NGO단체이다. 이들은 미국 내 대학과 고등학교 등에 구호 팀(Rescue Team)이라 불리는 지부를 두고 중국 현지에서 탈북자들의 탈북을 돕는 요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7년 2월 현재 281개의 구호 팀(Rescue Team)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으로 자유를 찾은 탈북자는 총 542명이다.

itshunne@bostonkorea.com



이날 하루 인기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의 주인공이 된 참가자들은 런닝맨 출연자 못지않은 적극성과 대담함을 보였다



북한 인권단체동아리인 링크(LINK)는 런닝맨을 주제로 한 각종 게임과 탈북자 문제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여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부시 정책연구소 탈북자 장학금 신청받아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달라스 소재 조지 W. 부시 정책 연구소는 2월 6일부터 미국내에서 대학 교육 이수자는 물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자유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10년간 수백명의 북한주민들은 생명의 위협마저 감수하며 북한을 탈출해 미국에 정착해왔다. 부시 정책 연구소는 두차례에 걸친 탈북인 연구를 통해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파악한 후, 한국 동포사회를 포함한 여러 단체와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협력해 왔다.

장학금 신청자는 반드시 탈북인이거나 탈북자의 직계자손으로 영주권 및 시민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장학금은 1년당 최대 1만5천불까지 지원하게 된다. 신청마감은 2017년 4월 28일이다.

부시 정책연구소의 홀리 쿡즈미치 소장은 "미국에 있는 탈북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아주 잘 적응하고 있으며 미국사회에 기여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폭압을 피해 탈출한 그들을 돕는 것이 왜 우리의 도의이며 국익인지를 생각하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로라 부시 여사는 지난 11월 장학금 발표식에서, "탈북자분에게 꿈과 목표를 물었을 때 교육을 통해 삶을 향상시키고 싶다"며 부시센터는 탈북난민들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장학금 신청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cftexas.academicworks.com/opportunities/1196>

bostonkorean@hotmail.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는 1월 29일 렉싱턴 소재 다빈 레스토랑에서 전체 회의 겸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보스턴 민주평통 신년 하례식 가져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는 1월 29일 렉싱턴 소재 다빈 레스토랑에서 전체 회의 겸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전체회의에서 황우성간사는 2016년 9월 전체 이후 사업 내용과 1월 15일 본국 사무처에 전달한 재정보고 및 올해 상반기 사업내용을 보고했다. 한선우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평통

위원들에게 감사와 지난해 사업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한 회장은 또 본국 사무처와 미주회장단 운영회의 참석과 그에 결의내용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신년하례에서 보스턴 민주평통은 김현주 부간사에게 수석부의장상을 수여했으며 이현경 홍보위원장은 미주 부의장의 공로상을 수상

했다. 김현주위원은 지난달 타주 이주 로 참석하지 못했다. 시상식 후 위원들은 신년 덕담을 나누며 저녁 식사시간을 가졌다. 식사 중 한선우회장은 다시 한번 참석한 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턴 산악회 정기산행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산악회는 2월 18일 토요일 뉴햄프셔 소재 피어스 마운틴(4312ft)으로 정기산행을 나간다. 이번 산행은 Crawford Connector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데 왕복 산행 거리는 6.4마일이며 산행시간은 약 5시간이다. 난이도는 4.0이다. 겨울산행이니만큼 준비물은 트레킹

폴스, 아이젠 (Microspikes 또는 Crampons)이 필수이다. 이외에도 배낭, 등산화착용, 방한복, 방풍의, 장갑, 털모자, 고글, 스틱, 식수, 간편한 중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집결지는 올스틴 공영주차장(오전 6시 30분)과 Park&Ride Exit2 of RT93(오전 7시 15분)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산행당일 회비 \$20을 지참해야

한다. 산행신청 마감날은 오는 2월 16일 목요일 오후 6시이다. 산행신청을 원하는 한인들은 A,B,C 중 원하시는 조와, 집결지 선택(Allston or Exit 2) 차량운행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 연락 전화를 남겨야 한다. 문의는 978-569-3256(김상호)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3.1절행사 3월 5일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98주년 3.1절 기념 행사를 3월 5일 일요일 오후 3시 생명의길장로교회에서 갖는다. 이날 한인회는 우영주 목사를 강사로 초청

해 "3.1운동 정신의 계승과 이민사회의 역할" 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듣는다. 행사후에는 간단한 다과가 있다. 장소 : 생명의 길 장로교회, 262 Academy Ave, Providence, RI 02908

주제 : "3.1 운동 정신의 계승과 이민사회의 역할" bostonkorean@hotmail.com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정월 대보름 노인회식사 초대글

안녕하세요?
2월 11일은 우리나라의 4대 명절 중의 하나인 정월 대보름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설, 단오, 추석 그리고 정월 대보름을 4대 명절로 지켜왔습니다. 그중에서 정월 대보름은 1년 12달중 첫 보름달을 맞이하는 날이고, 한해의 농사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해의 첫 보름달 빛은 액운을 물리치는 밝음의 상징으로 믿어오셨습니다. 바쁜 농사일을 쉬고 있는 한겨울에 맞는 정월 대보름에는 �곡밥과 나물들을 먹고, 여러 가지 토속적인 풍습들이 재미있게 이어져서 마을의 축제처럼 지내왔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귀밝이술은 귀를 밝게 해주고, 대보름에 먹는 �곡밥은 5가지의 곡식을 섞어서 지은 대표음식인데 추위에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약밥도 대보름 음식입니다. 대보름에 먹는 나물은 보름나물이라고도 하는데 정월 대보름에 9가지의 나물을 먹으면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고 건강을 지킬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때에는 주로 말려둔 나물들을 먹습니다. 정월 대보름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부럼인데, 보름날 아침에 자기 나이 수대로 까먹는 잣, 밤, 호두, 땅콩 등은 한해 동안 부스럼이 생기지 않게 막아준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된 때에는 재미있는 오랜 풍습일 수 있습니다. 풍년을 기원하는 줄다리기와 고싸움 놀이, 한 해의 액을 막고 복을 기원하는 연날리기 등은 대보름 명절 때에 많이 즐겼던 우리나라 토속적인 풍습들입니다. 가족중심적인 설날과는 다르게 대보름은 집단적이고 개방적인 마을 공동체의 명절이었습니다. 올해 대보름날에는 한인회 사무총장 모니카 리씨의 집에서 노인회분들을 모시고 대보름 음식과 덕담을 나누며 좋은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제리와 모니카 리 내외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짜 : 2월 11일 2017년 12시 장소 : 제리/모니카 리 자택 392N Main St., Attleboro, MA
이글은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의 노인회 식사초대장입니다. 정월대보름 풍습에 대해 잘 소개된 것 같아 그대로 옮겼습니다(편집자 주)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불매권 방지, 채무 조정, 산출권수 분할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약관면, 법원 사업체 등록, 증권, E-Discovery, 700+ 부속산책자니스 PMS 및 Charing 컨설턴트 소싱

파산보호신청 외곽인재 드리는 기본 서비스
* 100% 성공률 보장 *
* 100% 성공률 보장 *
* 100% 성공률 보장 *

파산보호 신청, 채무 조정, 부속산책자니스 PMS 및 Charing 컨설턴트 소싱

장우석 변호사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88
changlaw73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역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 Self 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a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이색적인 발렌타인데이 선물을 위한 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남 녀가 사랑을 고백하고 초콜릿과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통용되고 있는 발렌타인데이의 유래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그중 3세기 경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에 따르면 발렌타인데이는 269년 2월 14일에 순교한 성 발렌타인의 축일이다. 당시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스 2세는 군인들에게 결혼 금지령을 내렸는데, 이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는 연인들을 안타깝게 여긴 발렌타인 주교가 이들의 주례를 서준 죄로 순교하게 된 것이다.

현대식 발렌타인데이의 시초와 관련된 이야기는 15세기 영국에서 들려온다. 마거릿 부르스라는 시골 처녀가 짝사랑하던 존 패스틴이라는 청년에게 구애의 편지를 보낸 것을 계기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편지를 보낸 날이 바로 2월 14일이다. 현재 런던의 국립우편박물관에는 부르스양의 구애편지가 전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영국인들이 새가 짝짓기하는 날이 2월 14일이라고 믿었던 것에서 유래한다는 것과 고대 로마의 루퍼칼리아라는 축제가 그 시초라는 것 등 다양한 기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

무수한 이야기가 전해졌을 뿐 이렇다 할 전통이 없었던 발렌타인데이가 현대 사회에 와서 부활하게 된 것은 미국과 일본 등지의 마케팅 결

과라고 한다. 2월 초만 되면 빨강고 달콤한 초콜릿 박스를 비롯한 선물들이 눈길을 잡아 끄는 것은 그 때문이다. 마케팅에 영향받고 싶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가족, 연인에게 그동안의 고마움을 표현할 좋은 날임에는 틀림이 없다. 기존의 초콜릿이나 꽃도 좋지만 좀 더 이색적인 선물을 살 수 있는 보스톤 내 가게들을 소개한다. 보스톤닷컴과 보스톤매거진의 보도를 참고하였다.

바블뤼 (Bar Boulud)

유명 프렌치 셰프 다니엘 불뤼의 레스토랑으로 이번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하여 초콜릿 팝업 스토어를 2월 7일부터 2월 한 달 동안 운영한다. 봉봉, 마카롱, 컵케익과 같은 작은 디저트류 뿐만 아니라 초콜릿 무스, 크렘 드 코코아와 같이 다크 초콜릿을 베이스로 한 케이크류도 판매한다. 구매 전 미리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곱 개의 바의자가 놓인 초콜릿 카운터가 구비되어 있다.

홈페이지: barboulud.com

주소: 776 Boylston St., Boston

엘에이 버딕 (L.A. Burdick)

보스톤 내에 하버드 스퀘어와 백베이에 위치



바블뤼 레스토랑이 이번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하여 초콜릿 팝업 스토어를 2월 7일부터 2월 한달 동안 운영한다

한 엘에이 버딕은 수제 초콜릿 가게로 나무 상자에 담은 트뤼플 초콜릿을 판매하고 있다. 그 외에도 오스트리아 린저 타르트, 패션프루트 초콜릿 케이크 등 발렌타인데이에 알맞은 다른 상품들도 구매 가능하다. 선물을 사는 동안에는 가게에서 파는 핫 초콜릿을 한 잔 마실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홈페이지: burdickchocolate.com

주소: 220 Clarendon Street, Boston.; 52 Brattle Street, Cambridge

아바스 캐러멜 팝콘(Ava's Caramel Popcorn) 전형적인 초콜릿 선물보다 색다른 선물을 원한다면 캐러멜을 입힌 팝콘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본점은 알링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스톤 내에서는 뉴버리 가와 비컨힐의 상점에서 취급 중이다.

홈페이지: avascaramelpopcorn.com

주소: Arlington Centered, 487 Mass Ave.; Bauer Wine & Spirits, 330 Newbury Street.; Fastachi, 83 Charles Street, Beacon Hill

올리브스와 그레이스 (Olives and Grace)

사우스엔드의 트레몬트가에 위치한 가게로 특산식품과 아기자기한 가정용품들을 취급한다. 현재 운영 중인 발렌타인데이 기념 컬렉션에는 초콜릿과 꽃을 비롯하여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

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어떤 선물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면 가게를 운영하는 소피 매디슨에게 상대방에게 어울릴만한 상품을 추천받아 보자.

홈페이지: olivesandgrace.com

주소: 623 Tremont St. Boston

보스톤 폴렌(Boston Pollen)

웨딩용 화환 제작을 주로 하는 보스톤 폴렌에서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하여 60불 이상의 꽃다발을 주문제작 받고 있다. 미리 주문한 후 가게에서 픽업하는 것이 가능하며, 추가로 25불을 지불하면 발렌타인 당일 배달 서비스도 진행한다.

홈페이지: bostonpollen.com

브루클라인 북스미스 (Brookline Booksmith)

쿨리지 코너에 위치한 브루클라인 북스미스의 지하 매장. 중고 책으로 가득 차있는 이곳에서 로맨틱한 책이나 시를 찾아보자. 찾는 것이 어려울 땐 가게 매니저에게 부탁하면 된다. 서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토트백, 자석 등을 비롯한 아기자기한 소품을 책과 함께 곁들여서 선물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홈페이지: brooklinebooksmith.com

주소: 279 Harvard St, Brookline sun@bostonkorea.com



광어,우럭 사시미에 한잔 생각하시면 오빠 스시로 오세요

185 Harvard Ave. Allston

617 202 3808

BLESSING CHANNELS
네일 아카데미
BCNAILSCHOOL.COM

지금! 자격증에 도전하세요

네일 아카데미는 혁신적인 메이크업과 디자인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전문 학교입니다.

전문 수강생 특별할인 가격 (10월 31일)

"성업 중인 많은 내일 앞에서 본 학원 출신의 네일 테크니션을 항상 찾고 계십니다"



MA Best Nail School
by: Fortham Online
> 제일한 Teacher
> MA주 다 레인지 자격증 취득 과정

CATHERINE'S ART CLASS
www.bostonkoreabiz.com

주말 미술교실을 위한 열정적인 선생님들 만나세요! 10월 31일까지 10% 할인! 10월 31일까지 10% 할인! 10월 31일까지 10% 할인!

프레스, 수채화, 유화, 포스터, 조각, 액자 등 다양한 미술 수업

수업 시간: 10월 31일까지 (10월 31일)

(문의: 781.729.8868)

78 Millis Street #103, Boston, MA 02101
bent76@gmail.com

781.729.8868

현금 대출

- 비즈니스 오너를 위한 현금대출
- 은행 잔고 증명 불필요
- 신용조회 불필요
- 24시간내 승인

자세한 내용은 지금 전화하세요!
617.834.8183



저렴해진 우버 월 정액제 대중교통과 경쟁할 듯

20불 월 정액제 구입시 시내 탑승 회당 2불 Door-to-Door 측면에서 MBTA보다 장점 가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지난 5월부터 월정액제를 시범 도입한 우버가 택시는 물론 대중교통과도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10불과 20불 월정액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버는 2월을 지난달 가격의 절반으로 내려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갖췄다.

새로운 월정액요금은 10달러와 20달러 두 가지 형태가 있다. 10달러 정액제는 최대 20회까지 탑승시 보스톤 내 우버 풀(Pool) 요금이 1.99달러(기존 4.99달러)이며, 20불 정액제의 경우 최대 40회까지 같은 가격으로 탑승 가능하다. 우버 X로 이용할 경우 4.99달러(기존 8.99달러)로 이용할 수 있다.

MBTA의 월정액요금은 84.5달러로 전철과 버스를 횡수에 상관없이 탑승할 수 있다. MBTA의 월 패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우버 패스보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우버 풀 기준으로는 월 42회 이상, 우버 X로는 17회 이상 전철 및 버스를 탑승해야 한다. 우버에서는 Door-to-Door라는 편리함에

서 우위를 차지하지만 MBTA의 경우 매일 하루에 2회씩 전철을 탄다고 가정하면 비용, 효율측면에서는 우위를 점한다.

체스트넛 힐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중인 S씨는 “집이 있는 올스톤에서 학교까지 MBTA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우버를 사용했는데, 이번 달 ‘우버 패스’의 가격이 인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입을 결정했다”며 “MBTA 패스와 가격이 큰 차이가 없으면서 오랫동안 대중교통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크게 만족해했다.

우버 패스의 시범 서비스는 작년 5월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우버는 이번 달 까지 4차례의 패스 요금의 인상과 인하의 변동을 거쳤다. 우버의 요금제는 우버가 발표한 기간에만 구입할 수 있다. 새로운 우버 요금제는 우버 어플리케이션이나 우버 보스톤 패스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지만 부정기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2월9일 현재 구입 가능). 현재 보스톤에서 판매되는 우버 패스는 보스톤 전역을 포함, 메드퍼드, 몰든 (이상 최북단), 윈스롭 (이상 최동단), 보스톤 칼리지, 체스트넛 힐 일부 (이상 최서단), 리드빌과 퀸시 (이상 최남단)를 커버한다.

우버는 이번 달 1일부터 로건 국제공항에서의 영업이 허가되면서 택시와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게 되었으며, 이같은 영역확장을 바탕으로 이제는 대중교통과 우버의 본격적인 경쟁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 〈우버 Pass 구입〉
- 어플리케이션 : 좌측 메뉴 > 최상단 ‘정액요금’
 - 홈페이지 : <https://plus.uber.com/boston/buy>
- itshunne@bostonkorea.com



보스톤에서 판매되는 우버 Pass는 보스톤 전역을 포함하여 북쪽으로는 메드퍼드, 서쪽으로는 보스톤 칼리지, 남쪽으로는 리드빌과 퀸시를 커버한다

"이 동영상에 찍힌 사람 너 아니야?" - 페이스북 신종 사기 주의보

페이스북 메신저 통한 사기, 새 학기 분위기 타고 급속도 전파 본인 사진 들어간 유튜브 동영상 링크, 절대 클릭 말아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이 동영상에 찍힌 사람 혹시 너 아니야?”. 이런 형식의 메시지를 받았거나 본인 사진이 유튜브 링크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절대로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본인의 사진이 들어간 가짜 유튜브 링크 피싱사기(Phishing)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널리 퍼지고 있다. 특히 1월 중순부터 새 학기를 맞이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그 속도가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보스톤대학에 재학 중인 에디 씨는 “친구가 메신저로 내 사진이 담긴 동영상 링크를 보여주면서 ‘이 동영상에 찍힌 사람이 내가 아니냐’며 대화를 걸어왔다. 아무 의심 없이 링크를 클릭했다니 순식간에 바이러스가 퍼졌다”며 놀란 가슴을 쓸 어내렸다.

에디 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친구 그레이스 씨도 같은 방법으로 당한 피해자였다. 그레이스 씨는 “내가 링크를 클릭했을 때 내 계정이 해킹 당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방식으로 다른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같은 메시지가 전송되었다”며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해킹된 계정의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가짜 유튜브 링크를 통해 악성코드가 담긴 페이지로 유도하는 방법은 예전부터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이번 유행은 본인의 얼굴이 들어있는 가짜 유튜브 링크를 보여줌으로써 호기심을 더 자극하는 형태로 발전했다. 에디 씨와 그레이스 씨의 경우처럼 친구가 메신저로 보냈기에 안심하고 무심결에 링크를 클릭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가짜 유튜브 링크는 신종 바이러스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는 집계되지 않았다. 다만 이 게시물을 클릭하면 본인의 페이스북의 다른 친구들에게도 같은 형식의 메시지가 보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메시지를 하루 동안 두 명으로부터 받았다는 사람도 있어 같은 친구들을 공유하는



페이스북 친구로부터 "이거 너 아니야?"라는 메시지와 함께 가짜 유튜브 링크를 보내며 악성코드를 전파하는 인터넷 사기(phishing) 유행하고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학생들이나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면 즉각 페이스북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방화벽과 백신을 설치하고 바이러스를 탐색하는 것을 추천한다. 방화벽과 백신은 무료 프로그램 중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의 제품이 있으므로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 무료 보안 프로그램 설치의 대표적인 예는 ‘코모도(Comodo)’의 방화벽과 ‘판다 프리 안티바이러스’나 ‘어베스트(Avast)’ 등의 무료 백신 프로그램이 있다. 공식홈페이지에서 무료와 유료로 잘 구분한 후 다운로드 받도록 해야 한다. ‘V3’나 ‘알약’ 같은 한국산 무료 백신 프로그램은 외산 바이러스 예방에 큰 취약점을 드러내므로 되도록 국내산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 Comodo : <https://www.comodo.com>
 - 판다 프리 안티바이러스 : <http://www.pandasecurity.com>
 - Avast : <https://www.avast.com/en-us/index>
- itshunne@bostonkorea.com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 ① 요통, 어깨, 목, 허리 통증
- ② 두통, 편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구토
- ③ 비염, 천식, 알레르기, 각종 스포츠 손상
- ④ 만성 관절염, 비만, 근육통
- ⑤ 요통에 동반된 과민성 대장증후군
- ⑥ 급성, 만성 비염, 알레르기 비염
- ⑦ 만성적인 중추성 수면장애
- ⑧ 머리 시달림, 두통, 어지럼증, 두근거림, 불안

781.862.1842

www.gracea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압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비시츄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보스톤, 미국서 가장 살기 좋은 곳 8위

유에스 뉴스 선정 1위는 텍사스 오스틴
보스톤 고용 시장, 지역 선호도 높은 점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년 미국 내 대학들의 순위를 발표하기로 유명한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에서 미국 내 가장 살기 좋은 곳 (Best Places to Live in the USA)을 발표하였다. 보스톤 메트로 지역은 이 순위에서 8위를 차지했다.

유에스 뉴스는 미국의 대도시 위주로 100곳의 지역을 선정한 뒤 살기 좋은 곳에 대한 순위를 매겼다. 순위를 매기는 기준은 고용 시장, 생활비, 삶의 질(범죄율, 의료보험, 교육, 출퇴근 등), 지역 선호도,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산출하였다.

순위를 매길 때 사용한 자료는 미국 센서스의 데이터와 설문 조사 등을 토대로 하였으며 각 지표별로 1-10점씩 표준화된 점수로 환산하였다. 보스톤이 획득한 점수는 7.1이었다.

보스톤은 고용 시장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8.9점)를 받았으며, 지역 선호도에서도 좋은 점수(8.2)를 받았다. 반면에 유용성 측면에서는 낮은 점수(5.8)를 받았다.

유용성은 해당 지역에서 평균적인

수입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수치화한 것으로 생활비, 집값, 평균 수입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보스톤의 유용성 수치가 낮다는 것은 보스톤에서 평균적인 수입을 가지고는 편안하게 생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특히 유에스 뉴스는 보스톤 지역의 집값이 비쌀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이

나 식료품 가격 등도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싸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에스 뉴스의 자료에 따르면 보스톤의 생활비는 미국 평균보다 15-28%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유에스 뉴스의 순위에서 미국 내 가장 살기 좋은 곳 1위로 뽑힌 곳은 텍사스의 오스틴이다. 오스틴의 환산 점수는 7.8점이다. 오스틴의 뒤를 이어 콜로라도의 덴버, 캘리포니아의 산호세, 워싱턴 DC 등이 살기 좋은 곳 상위를 차지했다.

jsi@bostonkorea.com



보스톤은 고용 시장이 안정되어 있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시인 반면 주택 가격과 생활비가 높은 지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MA주 도시 2곳, 트럼프 대통령 상대 소송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라틴계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매사추세츠 도시 2곳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ies)에는 연방 정부의 지원을 삭감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첼시와 로렌스 시는 지난 8일 보스톤 연방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통해 연방 이민 기관에 협조하지 않는 커뮤니티에 대해 연방 지원금을 삭감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헌법에 위배되며, 연방 정부의 근본적인 취지

에 반대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비슷한 소송을 지난 주에 제기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제기된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의회의 동의가 없이 만들어졌으며,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연방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인구가 약 4만명인 첼시는 주민의 62%가 라틴계이며, 8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로렌스의 라틴계 비율은 74%이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더 나은 봄, 서울설렁탕의 미진, 특별 보쌈, 두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Fax: 1.866.815.1111



서울 or Deacon's Hill
158 Cambridge St, Boston
617.572.8888
Fax: 1.866.815.1111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지난 7일 열린 우승 퍼레이드는 푸르덴셜 센터에서 카플리 광장과 파크 스트리트를 지나 시청 광장까지 이어져 주변 일대는 밀려든 인파로 가득찼다(사진=김시훈 기자)



빌 벨리치 패트리엇스 감독(사진 왼쪽에서 3번째)이 코치진과 함께 시민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사진=김시훈 기자)



선수들을 태운 덕 투어 버스가 지나가자 시민들이 선수들을 향해 환호하고있다(사진=김시훈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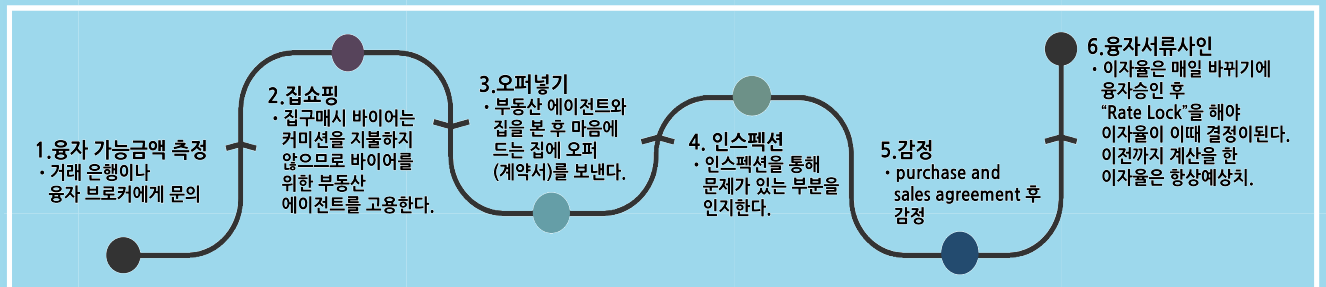


환호하는 관중들 앞에서 흥에 겨운 일부 선수들은 트레일러 위에 올라 춤을 추며 기쁨을 만끽했다(사진=김시훈 기자)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주세요!



주택 거래가 활발해 지는 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궁금하신점 그리고 프로세스 과정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생소한 단어들부터 시작해서 각종 서류들 및 바이어가 알고있어야될 내용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이어 분들께서는 집 구매 전에 미리 자신의 크레딧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한국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이 간혹 섞이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 하겠습니다.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gchoi@ownnewengland.com, pju@ownnewengland.com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美 '합법이민도 규제, 10년 뒤 절반으로'

공화당, 관련 법안 발의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제제가 '합법 이민'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8일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아칸소)과 데이빗 퍼듀 상원의원(조지아)은 전날 미국 내 합법적 이민자 수를 10년 내 절반으로 줄이는 '고용 강화를 위한 미국 이민법 개혁안(RAISE)'을 발의했다.

법안은 시행 첫 해 이민자 수를 40% 수준으로 줄이고, 10년 뒤에는 절반까지 줄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시민권·영주권 적용 범위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다. 직계 부모와 형제자매, 성인 자녀 등은 가족초청 이민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미국 이민자 수가 5만명 미만인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추첨 영주권제도 폐지도 포함하고 있다. 연

간 영주권 할당자 수는 5만명으로 제한한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코튼 의원은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도 "오랜 시간 우리의 이민제도는 부와 권력을 지닌 사람들에 의해 비뚤어졌다. 이제 모두를 위한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최근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

(앨라배마)의 뒤를 이어 강경한 이민 제도를 주장하는 인물로 꼽힌다.

코튼 의원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주요 관계자와 함께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마쳤으며 행정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민자들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나타낸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오직 지식인들만이 그렇게 바보 같은 것들을 믿을 수 있다"는 조지 오웰의 문구를 인용해 부인했다.

soho0901@news1.kr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

"중국인美가기 더 어려워질듯" 비자 발급 강화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번엔 중국인 여행객의 비자 발급 규정을 손질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주재 미 대사관은 8일 웹사이트를 통해 별도의 인터뷰 없이 비자를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인터뷰 면제 기준을 기존 비자 유효기간 만료 후 4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비자가 만료된 지 1년 이상이 지난 중국인들은 인터뷰 심사를 거쳐야만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반(反)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규정이 변화되면 중국인들의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환구시보는 지적했다. 중국외교학원의 리하이동 교수는 "중국과 미국을 오가며 문화적 교류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폴란드 시민들에 대해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별도 인터뷰 없는 비자 신청 규정을 비자 만료 후 12개월로 단축했다.

yjw@news1.kr



미국은 8일 중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비자 발급 신청 규정을 강화했다

세션스 美법무 인준으로 남은 장관 후보 9명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가 8일 의회 인준을 통과하면서 당락 결정이 남은 장관 후보는 총 9명으로 좁혀졌다.

지난 달 20일 가장 먼저 인준에 통과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존 F.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에 더해 8일 기준 총 15명의 장관 후보 중 6명이 인준에 통과했다.

지난 7일 찬반 표가 동수로 결정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가까스로 인준된 벤티 디보스 교육장관에 이어 8일 세션스 법무장관도 아

슬아슬하게 인준이 통과됐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일레인 차오 교통장관은 상대적으로 무난히 내각에 입성했다.

장관은 아니지만 상원 인준이 필수적인 중앙정보국장(CIA) 내정자 마이크 폼페오와 유엔 주재 미국 대사 후보 니키 헤일리도 상원 표결을 거쳐 자리를 지켜낸 상태다.

앞으로 인준이 필요한 9명 장관 후보 중 톰 프라이스 보건장관 후보의 인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CNN에 따르면 미 상원은 8일 민주

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막는 안을 찬성 51대 반대 48표로 통과시켜 오는 10일 표결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프라이스 장관을 필두로 전임 행정부의 역점 사업인 '오바마케어' 폐기를 추진해야하는 공화당으로선 프라이스 장관 인준이 매우 시급한 상태다. 또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인준도 10일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yjw@news1.kr



미국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 내정자

골프 레슨

US GTF 최성조 프로
 UNITED STATES SELF TEACHERS FEDERATION
 Master Golf Professional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Century 21

주책 | 콘도 | 커머셜
 성실한 도와드리겠습니다

Eileen Park (아일린 박) REALTOR®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1274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HAPPY HAPPY동상

고급의 전통상차이 30년 80년
 100년 전통의 장인 정신을
 100년 전통의 장인 정신을
 100년 전통의 장인 정신을

문의 617.248.3131 Happydol@icloud.com

내 딸 브랜드를 퇴출해?... 트럼프, 백화점에 분노

이방카 브랜드 퇴출 노드스트롬에 "끔찍하다" 트윗 비서실장도 두둔...내각들 일제 트윗 실어나르기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화살이 이번엔 미국내 고급 백화점을 정조준했다. 딸 이방카 트럼프의 의류 브랜드를 백화점에서 퇴출시켰다는 이유에서다.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내 딸 이방카가 노드스트롬에서 매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 그녀는 위대한 사람이며 언제나 내가 옳은 일을 하게 만든다. (노드스트롬의 결정은)끔찍하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트럼프의 내각 관료들은 트럼프의 개인 계정에 등록된 이 트윗을 1510만 팔로워가 있는 미국 대통령 공식 계정으로 그대로 실어날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공격은 유명 백화점 노드스트롬이 지난 3일 이방카가 운영하는 의류 브랜드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백화점 입점 계약을 더 이상 체결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노드스트롬은 온전히 사업적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결정이 난 시점이 반(反) 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사흘 뒤의 일이라 백악관측으로부터 정치적 결정이란 공격을 받고 있다.

손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노드스트롬이 이방카 트럼프를 정치적 이유로 겨냥했다면서 "이것은 트럼프의 정책

과 그녀의 이름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또 "트럼프의 행동이나 행정명령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의 가족을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대통령은 가족과 박수받을 만한 사업 활동, 그들의 성공을 지킬 권리가 있다"며 대통령의 입장을 두둔했다.

최근 트럼프 반대파들은 미 전역에서 '#네 지갑을 움켜 쥐어라'(GrabYourWallet)란 해시태그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파, 불매 운동을 펼치면서 노드스트롬을 포함한 미 유명 백화점을 압박했다. 경쟁업체 메이시스에도 소비자들로부터 판매 중단 요청이 쇄도해 이방카 브랜

드 판매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비즈니스인사이드(BI)가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공직자로서 가족의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오바마 행정부 때 백악관 윤리 자문관을 지낸 놉 에이슨은 트럼프의 이번 비판은 "터무니없다"라면서 노드스트롬에 캘리포니아 주 불공정경쟁법을 적용해 정부를 고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 윤리담당 법률 고문을 지낸 리차드 페인터 변호사는 "사적 이득을 위해 공직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정부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우에도 대통령이 사업체 이름을 지목하는 것을 피해왔던 것이 관례라고 지적했다.

yjw@news1.kr



미 의류 백화점 노드스트롬

"애플, 지금부터 20% 오른다" 목표주가 160달러

(서울=뉴스1) 온다에 기자 = 뉴욕증시에서 애플 주가가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47%가량 올랐다. 2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일부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주가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7일 CNBC의 보도에 따르면 파이프 재플레이의 크레이그 존슨 기술적 분석가는 애플의 주가 상승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현 수준에서 주가가 20%가량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애플은 0.95% 상승한 주당 131.53달러에 장을 마쳤다.

존슨 애널리스트는 애플 주가가 최저 90달러에서 최대 130달러 사이의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날 장중 한때 주가가 132.09를 기록하면서 변동범위 상단이 깨졌다고 밝혔다. 존슨 연구원은 박스권의 상단을 단번에 뚫고 올라갈 때 때문에 주가가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존슨 애널리스트는 목표 주가를

160달러대로 제시하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오른 뒤 지지선과 저항선을 다시 설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4월 말 애플은 134.43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만약 애플 주가가 2년 전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면 애플의 시가총액은 8500억 달러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존슨 애널리스트의 전망이다. 현재 애플의 시가총액은 696억5000만 달러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애플 주가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크로싱웰스트리트의 에디 알렌베인 애널리스트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애플의 매직넘버는 주당 190달러"라며 더 낙관적인 주가 전망을 제시했다. 만약 주가가 190달러를 달성하면 애플은 시가총액 1조달러를 달성하게 된다.

hahaha8288@news1.kr



애플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학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레스토랑 창업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 ☑ 치킨 관련 전문업체
- ☑ 소스 공급 및 요리 기술 전수
- ☑ 영업 노하우 전수

치킨 가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 20년 경력의 파방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스턴에서 레스토랑 운영중이므로 인제돈 맛과 실습 가능.
 주방기술자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분, 더 이상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파방돌로 연락주세요.
 검증된 노하우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치킨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식당을 준비하시는 분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모든 제품은 한국 파방돌공장에서 안정적 공급이 됩니다.
 안심하고 정사에만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치킨양념 소스	참깨 소스	과전 파우더
치킨간장소스	불고기 소스	프렌치프라이 시즈닝
치킨 파우더	순두부 시즈닝	부대찌개 소스
치킨 염지제	순두부 다대기	갈비 소스, 자육복음 소스
떡볶이 소스	샤브 육수	김치찌개 소스

전화: 857.237.4985(문자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메일: farandoleusa@gmail.com
 웹사이트: www.farandole.co.kr
 한국공장: 경기 안산 단원 상곡 638-4 102동 파방돌

파방돌 공장 전경



레스토랑 주소: 175 Massachusetts ave, Boston, MA 02115 (버클리 음대 맞은편)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JESSICA BEAUTY

한국 종합 화장품 | 참존 화장품 직영

시선집중 잡티개선, 주름개선, 탄력개선, 미백까지...

“화장품에도 당신의 인격과 품격이 묻어납니다”

나만의 화장품으로, 내 피부는 내가 만든다.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상륙 참존 스킨타우샴에서 피부관리 하시는
 멤버에게만 사용하는 제품

처진 피부에 회소식

스킨타운 프리미엄 리와이징 크림으로
 처진 피부를 개선 (탄력강화 조식이 살아납니다)
 잡티 개선 참연셀 비타민C.E크림



617.770.0188
 온라인 쇼핑몰 오픈 | 무료배송

JessicaSecret.com

219 Quincy Ave. #31-A, Quincy, MA 02169
 金門 Kam Man Food 중국마켓 안에 있습니다

물 건너간 2월 초 특검의 차 대통령 대면조사...무산 가능성도?

‘일정유출’ 논란으로 청와대 일방 거부통보

특검 "상호 논란의 여지 될 부분 없도록 조율하겠다"

(서울=뉴스1) 이후민, 유기림, 심연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핵심 수사대상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계획이 '일정유출' 논란 이후 청와대 측의 일방적인 조사거부 통보로 '2월 초' 대면조사 방침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박 대통령 측이 제시한 요구를 특검이 대부분 받아들여 일정까지 합의된 마당에 일정 공개를 이유로 조사를 갑자기 거부하는 것은 노골적인 지연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악의 경우 대면조사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21일 특검 수사개시 이후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박 대통령은 현재 특검 수사대상이 된 여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특검의 필수과제이자 존재이유였기 때문이다.

피의자 신분인 박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서의 비공개 대면조사 등 무리한 특혜를 요구하는 데도 특검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 것도 짧은 시간 내에 박 대통령 조사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는

특검 수사상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9일을 대면조사 날짜로 확정하고 청와대 측과 대면조사 일정 등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되, 조사가 완료된 후 서로 동시에 조사시간과 장소 등 수사절차상 이루어진 사항을 공개하기로 합의했었다.

특검법 제12조에 따라 수사내용을 제외한 수사진행 상황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박 대통령 측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특검으로서의 제한된 수사기간에 반드시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점, 대통령으로서의 경호상 안전 등을 고려했다"며 "사전이 공개하지는 않지만 조사가 끝난 후 공개하는 정도의 조건이라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같은 합의 이후 언론보도를 이유로 청와대 측이 예정된 대면조사 거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나서자 합의된 사실을 언론 등 외부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유출한 바 없으며 답답해하는 반응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청와대 측은 이날로 예정됐던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특검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이후 특검팀은 박 대통령 측 변호인과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10일 조사도 어렵거니와 대규모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예고된 토요일인 11일은 청와대 측이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여서 다시 조율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시기는 다음주쯤까지 미뤄질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조사일정 공개에 대해 불쾌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일정을 다시 조율하겠다고 하는 등 대면조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이 그나마 긍정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중요한 건 박 대통령이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당시에도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가 지난해 11월28일 끝내 대면조사를 거부한 전력도 있다.

특검은 공식 수사기간이 앞으로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같길은 급하다.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한차

레 실패로 돌아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끝내 거부한다면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사실상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특검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차질은 특검수사 전체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도 있다. 특검은 삼성 뇌물수수 공범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과 최씨를 모두 조사한 이후 다음주까지 뇌물공여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박 대통령 조사가 늦어지면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는 물론 박 대통령 기소까지 기한 내 이뤄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며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했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일지 역시 알 수 없다.

특검팀은 청와대와 조율과정을 밝으면서 상호 논란의 여지가 될 부분은 가급적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청와대 측과 일정이나 방법 등 조율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일정을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비공개 가능성을 완전히 닫은 건 아니다"면서도 "(이전 합의처럼) 무산될 수 있는 조건은 하지 않겠다. (조사의) 공개 여부를 떠나 만나기로 해놓고 조건을 파기했다는 식으로 하는 형태의 대면조사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hm3346@news1.kr



특검 '차대면조사 무산 때 수사기한 연장돼야'

"차측 일정 공개되자 파기통보...특검이 유출 안해"
"대면조사 원칙불변·비슷한 논란 없게 조율"...양보시사

(서울=뉴스1) 심연기, 이후민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검은 대면조사 추진원칙을 분명히 했지만 '일정유출' 논란 이후 박 대통령 측과 물밑접촉에 난항을 겪고 있어 이번 주 내 대면조사는 사실상 물 건너간 모양새다.

특검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추후 일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기본원칙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상당 기간 대통령 변호인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하는 등 사전접촉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인 점과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시간, 장소 및 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대통령 측

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제12조 '사건의 대국민보고' 조항은 '특검 또는 특검보가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 등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대면조사 성사를 위해 일정과 장소 등을 비공개한 채 박 대통령 조사 이후 사후공개하는데 합의하며 크게 양보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일정 및 장소가 언론에 보도되자 이를 빌미로 9일로 예정됐던 대면조사 거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가 일정유출 진원지가 특검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합의에 따라 합의된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특검 입장에서는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 측이 노골적 시간끌기에 나섰지만 특검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속수무책이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는 일방적으로 혼자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현재 대통령 측 변호인과는 일체 연락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어제 이후에는 서로 접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일정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조사는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그러면서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기한연장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추후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 여러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율할 것이나, 이번 합의과정에서 상호 간 논란의 여지가 될 부분은 가급적 없도록 하여 조율할 생각"이라고 비공개조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전했다.

eonki@news1.kr

특검 '차대면조사 원칙 불변 일정 유출 할 이유 없어'

(서울=뉴스1) 심연기, 이후민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9일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추후 일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상당 기간 동안 대통령 변호인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하는 등 사전접촉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인 점과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시간, 장소 및 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대통령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특히 대면조사 비공개와 관련하여 사전조사 일정 등은 특검법 제12조에 따라 공개를 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되 조사가 완료된 후 상호 동시에 조사 시간, 장소 등 수사절차상 이루어진 사항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박 대통령 측과의 기존 합의사실을 공개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 측이 대면

조사 일정을 특검팀에서 유출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이런 합의에 따라 합의된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특검 입장에서는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 변호인은 2월7일 특정 언론에서 일정 및 장소가 보도되자 2월9일로 예정된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특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박 대통령 측의 일방파기 임을 분명히 했다.

이 특검보는 "추후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여러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율할 것"이라며 "이번 합의 과정에서 상호 간에 논란의 여지가 될 부분은 가급적 없도록 하여 조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FEB. 10 - FEB. 16, 2017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LACK BEAN SAUCE FRIED RICE

Perfect meal for you and your loved ones. Who can resist this sweet and tasty meal? Make it extra delish with sunny side up.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맛있는 한끼 식사! H마트가 언제 먹어도 맛있는 짜장볶음밥을 소개합니다.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



- NATURE'S Tofu 자연담은 두부 Soft/Firm - 14oz. **\$1.19**
- Nagaimo 일본 마 **\$5.99**
- Oriental Sweet Potato 고구마 Medium Size **\$1.29**
- 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워싱턴 후지사과 프리미엄 **\$1.29**
- Purple Sweet Potato Hawaii 보라색 고구마 하와이 **\$1.99**
- Mango 망고 box **\$6.99**
- Dragon Fruit 드래곤 플러트 **\$3.99**
- Loots Root 연근 **\$1.88**
- Kabocha 단호박 **\$0.88**
- Gobo 우엉 **\$1.99**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 Boneless Pork Loin for Roast 돈까스용 돼지등심 **\$4.99**
- Whole Chicken 닭고기 **\$1.49**
- Bone-in Beef Hind Shank 뼈있는 아롱사태 **\$4.99**
- Sliced Beef Short Plate 냉동 삼겹 양지 슬라이스 **\$7.99**
- Beef Bone 사골 **\$1.29**
- Marinated Sliced Pork Single Rib Belly 양념 삼겹살 **\$4.99**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 삼수갑산 현미 SAMSUGANSAN Brown Rice 15 lbs. **\$9.99**
- 스팸 SPAM HORMEL FOODS Spam **2\$5**
- 동서백산 커피믹스 DONGSUH Maxim Coffe Mix Original/Mocha Salt **\$9.99**
- 청정원 순창 현미 네임츠 칠고추장 CHUNGJONGONE Brown Rice Red Pepper Paste **\$12.99**

HELLO HOME Valentine's Sale

내 사랑을 위한 선물은 핑크로 어떤?
Until February 14, 2017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 BANTRY BAY Mussels in a Garlic Butter Sauce 갈릭버터 홍합 1 lb./pkg. **2\$4.99**
- BANTRY BAY Mussels in a Tomato & Garlic Butter Sauce 토마토 버터 홍합 1 lb./pkg. **2\$4.99**
- SUHYUP Sea Squirt Block 수협 남동 영계 **\$9.99**
- Swai Fillet 스와이 필렛 **\$2.99**
- Salted Mackerel 넙치 자반 고등어 **\$3.99**
- Monkfish Tail 아귀등통 **\$3.99**

- 농림부대미종면 NONSEMI Budeo (Jigae Noodle) Soup 4.4lb. x 4pkgs. **\$7.99**
- 시라키 사누끼어 우동 SHIRAKI Japanese Style Sanukiya Udon Noodles **\$3.99**
- HAOREUM Seasoned Roasted Seaweed 해우름 말도둑 도사락김 0.15oz. x 30pkgs. **\$2.99**
- ESSENCE Grapesed Oil 에센시아 올리브유 34oz. **\$4.99**
- HUY FONG Sriracha Hot Chili Sauce 후이퐁 스페리차 소스 28oz. **2\$5**
- PULMUONE Noodles with Fire Roasted Black Bean Sauce 풀무원 직화 짜장면 **\$4.99**
- CI Cooked White Rice with Seaweed Porridge (Bibimbab) CI 밥면 김냉장 보리 비빔밥 0.87oz. **2\$5**
- DAILEE Karage Chicken 데일리 카라지 치킨 **\$5.99**
- OSAKI BRAND Fish Cake 오사키 게맛살 1.1 lb. **\$6.99**
- 해오름 유자차 HAOREUM Citrus Tea with Honey 2.2 lbs. **\$4.99**
- GLUCO Pocky Biscuit Sticks Chocolate - 4.7oz./ Strawberry - 4.7oz. **\$2.99**
- 알뜰애가든 프리미엄 베라 사과맛 A.O.E. GARDEN Premium Aloe Vera Apple 20.78oz. **\$0.99**
- CHOCE L Seed 초이스 셀러스 Bulganga Roe Picturus Yellow Perch (Egg White) Pack 2.8oz. x 4pkgs. **\$4.99**
- Nickel Silver Pot 양면 전골 냄비 24cm/9.1" **\$6.99**
- SUNGO CLEANY Magic Cleaner 성보 매직 크리너 11.5 x 21.3 x 20cm/4.5" **\$1.49**

During the selling process, there may be changes in quantity, size,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MART BURLINGTON STORE: 43 W. Middle Street,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4520 / STORE HOURS: Sun - Thu 10am - 9pm / Fri - Sat 10am - 10pm

탄핵심판 막바지... 차대통령이 꺼내들 '경우의 수'

파면 부당 주장하면서 재판 지연전략 노골화
대통령 본인이 출석 고려할 수도... 효력은 미지수

(서울=뉴스1) 안대용, 구교은 기자 = 막바지에 치닫하고 있는 탄핵심판에서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탄핵심판의 결과와 선고시점이 대선일정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재판 전략 하나 하나가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기본적으로 '파면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변론이 거듭될수록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58·사법연수원 15기)는 7일 11회 변론이 끝난 후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현재가) 두 달 만에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외적으로 '신속한 결정=불공정한 결론'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신속한 결정=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론'이라는 전제하에 변론을 진행

하고 있다.

특히 이정미 현재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이 3월13일 퇴임하면 7인의 재판관만 남게 되고 지금보다 '탄핵기각' 결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점에서 우선 탄핵 선고를 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로 미루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앞으로 재판 지연을 위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증인 추가 신청 △대리인단 전원사퇴 △박 대통령 본인 출석 정도다.

이 변호사는 전날 "추가로 또 증인 신청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는 최대한 절제해 신청한 거니까 없다고 볼 수 있겠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장담 못한다"며 여지를 남겨 뒀다.

박 대통령 측은 앞서 8회 변론에서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한 데 이어 10회 변론에서 이미 한 차례 증인신문을 한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안

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구속기소) 등 15명을, 6일 오후에는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현재가 전날 11회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 8명을 추가로 채택해 22일 16회 변론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잡았지만 박 대통령 측이 더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현재에 신청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 변호사는 대리인단 전원사퇴를 암시하는 '중대결심'과 관련해선 "지금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끼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리인단이 아닌 박 대통령 본인이 '판 흔들기'를 시도할 수도 있다. 변론 마무리 시점에 직접 대심판정에 출석하겠다고 밝혀 시간을 버는 것이다.

하지만 이 카드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탄핵소추사유와 관련된 증인신문이 상당히 진행돼 현재가 추가로 증인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가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해도 현재가 원래 계획한 일정대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기 때문이다.

또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 전 출석 의사를 밝히면 현재가 그에 따라 최종 변론을 진행하면 되고, 최종 변론 후 출석 의사를 밝히더라도 앞선 변론 진행 동안 충분히 출석할 수 있었는데도 나오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현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법 제49조 2항 규정이 박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실제로 대심판정 출석을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법 제49조 2항은 국회 소추위원

이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당사자 신문에 참여한 후 결과적으로 더 불리해질 수 있는데 굳이 출석하겠느냐는 분석이다.

현재는 9일과 14일, 16일, 20일, 22일 변론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이달 말 최종변론이 이뤄진 후 3월 6일~10일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재 안팎의 분석이다.

dandy@news1.kr



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1차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달라진 현재... "지엽적·불필요한 질문 많다" 적극 개입

이정미 재판장·강일원 주심 재판관 작심한 듯 나서
차츰 늘어지는 증인신문 차단... 국회측에도 주의

(서울=뉴스1) 안대용, 최은지 기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방식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증인신문이 마냥 늘어지는 것을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근거 없는 '탄핵기각설'이 불거지는 등 아직 형성되지도 않은 재판부의 '심증'에 관한 무분별한 추측이 언급되고, 박 대통령 측 지연 전략에 끌려간다는 비판이 나오자 현재가 심리의 주도권을 틀어쥐고 사건 진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인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은 9일 12회 변론에 출석한 조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증인신문 도중 박 대통령 측 질문에 여러차례 주의를 주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측 질문이 늘어지자 "증인의 답변 부분 계속 확인인데 신문에 비효율성이 있는 것 같다"며 "효율적으로 신문하면 감사하겠다"고 지적했다.

또 "질문 취지가 불분명하다" "질문 내용 이해를 못하겠다" "신문 내용이 지엽적이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증인이 아는 내용을 물어달라"고

말하며 박 대통령 측에게 효율적인 신문을 주문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58·14기)도 여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에 개입하며 박 대통령 측 증인신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재판관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조 전 대표에게 "급여가 법인카드에서 나간 거 아니냐"고 질문하자 "급여가 어떻게 법인카드에서 나가냐"고 말하러를 잘랐다.

또 박 대통령 측이 수사기록을 확인하는 질문을 반복하자 "왜 수사기록을 다 확인하고 있는지 재판부로서 이해가 안 된다"며 "조서에 부동의한 취지가 있을 텐데 탄핵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조서 그대로 확인만 하고 있다. 불필요한 질문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 이후에도 박 대통령 측의 증인신문에 문제를 제기하며 "똑같은 말을 같이 해서 미안한데 묻고 있는 것이 조서를 부동의한

것이고 피청구인(박 대통령)한테 불리한 것 아니냐"며 "대리인이 피청구인의 이익에 반하는 신문을 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 측도 핀잔을 들어야 했다.

강 재판관은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이 조 전 대표에게 "증인이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씨가 실질적으로 K 스포츠재단을 지배하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고 하자 "지금까지 다 증언했는데 뭘 설명하냐"며 "자꾸 중복하지 말고 딱 집어서 물어달라. 지금 질문은 다 중복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 소추위원 측이 조 전 대표에게 의견을 묻는 질문을 하자 "(조 전 대표는) 답변 안 해도 된다. 의견을 묻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dandy@news1.kr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2일도 탄핵심판 증인신문 현재 3월13일 전 선고 가능할까

(서울=뉴스1) 안대용, 김일창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이달 하순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3월 둘째주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1회 변론에서 향후 변론일정을 잡으면서 16일(목) 20일(월) 22일(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가 이달 넷째주 수요일인 22일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잡으면서 23일이나 24일 한번 더 변론을 연다고 해도 최종변론은 빨라도 넷째주 이후에 이뤄지게 됐다.

최종변론 일정과 관련해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최종변론에 대한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한다"며 "하지만 통상적으로 양당사자 중 한쪽이 기일지정 신청을 하면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상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변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변론 후 2주 안팎의 평의를 거친 다음 선고를 하는 관례를 고려하면 박 대통령 파면여부 결정은 3월 둘째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가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 8명을 채택하면서 3회의 변론을 연장하면서 증인신문 일정을 잡았지만 사실상 증인신문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 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을 신청해 받아들여지거나 증인 불출석 등으로 예정된 신문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지연될 수 있다.

또 여전히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갑자기 '전원사퇴' 카드를 꺼내들거나 박 대통령 본인이 현재 대심판정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변론 후 "2개월 만에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22일까지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사실상 이게 끝으로 보이는데 다음에 최종변론 잡는데 이의가 없냐"는 질문에 "돌출변수가 있어 장담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dandy@news1.kr

구제역 · AI 두가지 바이러스 동시 발생...정부 '당황'

구제역 A형, 2010년 이후 7년만에 다시 발생 김제 시는 오리가 취약한 새로운 유형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올겨울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모두 두가지 바이러스 형태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 연천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은 2010년 이후 7년만에 발생, 현재 접종한 백신으로 막을 수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전북 김제의 H5N8형 AI는 오리가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방역 전선'이 확대될 우려가 제기된다.

장에서 H5N8형 AI가 발견됐다. H5N8형 바이러스는 올겨울 야생조류에서 발견된 적은 있지만 가금류 농장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이 바이러스는 2014년 국내에서 발생해 2년간 닭과 오리 1900여만 마리를 살처분으로 몰아넣었다. 올겨울 유행하고 있는 H5N6형 바이러스보다는 병원성이 약하지만 잠복기가 길어 증상이 늦게 나타난다. 따라서 발견하는데 시간이 걸리며 그만큼 2차 감염의 위험은 높다. 과거에는 주로 오리 농장에서 많이 발생했다.

올겨울 유행한 H5N6형 AI는 주로 산란계에 집중됐지만 만약 H5N8형이 오리 농가에 확산될 경우 오리 값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제역도 두가지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날 의심신고가 접수된 경기 연천의 젓소 사육농장은 혈청형 'A형' 구제역으로 판정 받았다. 5~6일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 젓소농장과 전북 정읍 한우농가는 0형이었다.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 이번까지 여덟 차례 구제역이 발생했다. 그중 A형이 발생한 것은 2010년 1월 포천·연천 소 농가에서 발생한 6건뿐이다. 당국은 A형 확산에 당황하고 있다. 그동안 0형 구제역만 주로 발생해 미처 대비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

형 구제역에 적합한 백신도 국내에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A형 구제역이 창궐한 2010년에는 백신 정책을 시행하지 않아 백신 효능에 대한 검사 결과도 없다.

국(OIE)에서 경기 연천 젓소의 A형 혈청형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검사결과가 나오면 적합한 백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제수역사무 honesty82@news1.kr

"농민 탓이라더니" 수의사 접종 농장도 18.8%

충북 보은 한 농가 항체 형성률 '낙제점' 물 백신 논란 대부분 기준치 80%에 못 미쳐...구제역 예방대책 허술

(충북·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축산농가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뜨겁다.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의 소에 대해 항체 형성률을 조사한 결과 19%, 5%에 그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후 축산농가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구제역을 불렀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백신 구입비 부담이나 착유량·가축 증체율(체중증가율) 저하 등을 이유로 농가가 백신 접종을 기피하거나 아예 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또한 냉장 보관(2~3도)했던 백신을 미지근한 물에 담가 상온(18도)에서 접종해야 하는데 이런 가이드라인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마디로 농민 탓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공공 수의사들이 백신을 접종한 농가에서도 기준치 이하로 나오면서 당국의 해명이 무색해졌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6일 구제역이 확진된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발생지역 500m 안 한우·육우 농장 9곳의 항체 형성률은 54.4%였다. 이 가운데 농가에서 직접 접종한 경우 40.3%, 공공 수의사가 접종한 경우는 68.9%의 항체 형성률을 보였다. 모두 기준치인 80%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다. 또한 앞서 8일 충북도가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소의 항체 형성률 97.8%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소의 항체 형성률이 80% 미만이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항체 형성률이 80%에 미달하면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수의사가 접종한 경우도 기준치를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구제역 발생 이후 충북도가 발생 농가 500m내 9곳과 반경 3km내 11곳 등 20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의사가 직접 접종한 보은 한 농가의 경우 항체 형성률이 18.8%로 나타났다. 소 16마리에 백신을 접종했는데 3마리에서만 항체가 생긴 것이다. 이처럼 수의사가 접종한 곳도 기

대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백신 효능에 대한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수의사가 직접 접종을 한 농장에서 기대치 이하의 항체 형성률이 나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으론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구제역 발생농장 농장주는 "군청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구제역 발생) 책임을 농가에 돌리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현행 가이드라인에는 50마리 이하 소규모 농장은 수의사가 직접 접종하고, 50마리 이상 대형 농장은 농장주가 직접 백신을 접종하도록 돼 있다. pine@news1.kr



8일 오후 충남 논산 한 축사에서 축협 방역담당 직원이 구제역 예방 접종을 하고 있다

정부, 구제역 최고 단계 격상 2010년 이후 처음

전국 우제류 가축 시장 18일까지 폐쇄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방역 단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했다. 이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2010년 이후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가축방역 심의회를 열고 방역 단계를 현재 '경계'에서 최고등급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일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젓소 사육농장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후 다음날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2곳의 확진농가와 1곳의 의심농가가 발생하자 사흘 만에 위기단계를 최고로 격상했다. 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 수습본부 부실장인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정책실장은 "구제역이 경기, 충북, 전북 등 여러 시도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 발생 유형인 0형이 아닌 A형 구제역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방역단계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심각 단계에서는 전국의 모든 시

군 간, 시도 간 거점소독장소를 설치하고 통제 초소가 전국의 주요 도로로 확대된다. 발생 시·도에 정부 합동지원반의 파견과 축산 관련 단체장 선거 연기 등 방역 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우제류 관련 전국 축산농가 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또 전국 우제류 가축 시장을 오는 18일까지 일시 폐쇄하고 농장 간 살아있는 우제류 이동도 금지된다. 경기도의 경우 우제류 가축의 다른 시도 반출을 15일 밤 12시까지 제한한다. 발생 농장 내의 우제류는 양성으로 확진되는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살처분, 폐기한다. 구제역·AI 중앙사고 수습본부장인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구제역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차량소독과 이동통제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제류 농장, 축산관련 시설의 방문과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honesty82@news1.kr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정책실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가축방역심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불판

바베큐&라운지



ALL YOU CAN EAT:
\$39.95

안장살, 주물럭, 불고기, 차돌박이, 닭불고기, 돼지불고기, 삼겹살, 뼈없는 갈비, LA갈비, 통심, 곱창, 새우, 오징어, 모듬고기 등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각종 반찬 및 공기밥



가장 신선한 고기를 마음껏 즐기세요!

영업 시간
 Mon-Thu : 11:30am to 10:00pm
 Fri-Sat : 11:30am to 11:00pm
 Sun: 12:00pm to 10:00pm

연회석
60여명 수용, 가라오케 완비

스시바
각종 스시 및 상생한 회

히바치

바베큐
안장살, 주물럭 등 각종 바베큐

BAR
Full Liquor 라이센스




BULPAN RESTAURANT
Korean BBQ, Hibachi, Sushi & Chinese


781.863.2800

27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스트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클 멘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dentallexington.com
www.ico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a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종현
 교정 전문의

트럼프에 휘청인 원화 환율...1월 일평균 7.7원 출렁

전일 대비 환율 변동성 영국·일본 다음으로 커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달러 강세 경제 발언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책으로 1월 중 달러/원 환율이 심하게 요동쳤다.

한국은행이 9일 내놓은 '1월 중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을 보면 1월 중 하루 변동 폭은 평균 7.7원에 달했다. 전일 대비 변동 폭도 평균 7.1원으로 12월(4원)의 1.7배다.

우리나라의 전일 대비 환율 변동성은 0.6%로 영국(0.72%), 일본(0.71%) 뒤를 이었다. 러시아와 같은 수준이다.

1월 중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경제지표 호조 등에 따른 긍정적인 요

인에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제한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강세가 미국 기업을 죽이고 있다"고 전 세계를 상대로 환율 전쟁을 선포하면서 달러/원 환율은 급락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달러/원 환율은 1207.7원이었지만 1월 말에는 1162.1원으로 떨어졌다. 이날 달러/원 환율은 1145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1월 중 선진국 국채금리(10년)는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주요국의 양호한 경제 지표로 상승했다. 신흥국 국채금

리는 브라질 등 각국 중앙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대체로 하락했다.

선진국 주가는 1월 말 들어 상승 폭

이 줄었다. 미국의 기업실적 호조, 트럼프 정부의 친 성장정책 추진 기대감 등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로 상승세가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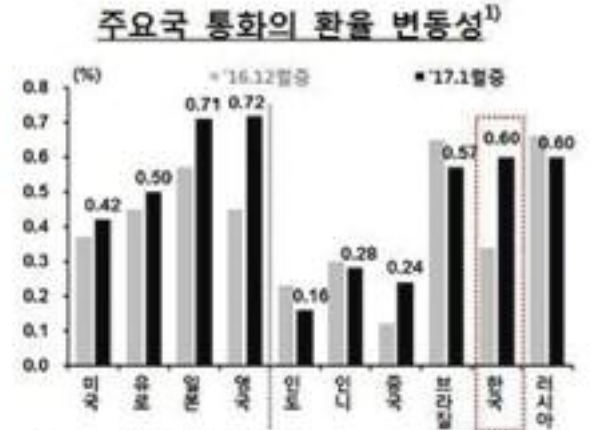
했다. 신흥국 주가는 유가 상승 기대 등으로 투자 심리를 회복하면서 상당폭 상승했다.

junoo5683@news1.kr

원/달러 환율 변동성
(기간중 평균, 원, %)

	'16.11월	12월	'17.1월
■ 일중 변동폭	7.9	6.0	7.7
변동률	0.68	0.51	0.65
■ 전일 대비	5.5	4.0	7.1
변동률	0.47	0.34	0.60

자료: ECOS



주: 1) 전일대비 변동률
자료: Bloomberg, Reuters

정부 "농민 탓", 농민 "백신 탓"

"예상했던 대로" 구제역 주변 농장 항체 형성률 '낙제점'
충북도 조사결과 절반이상 기준치 이하 판정
2개 농가 0%...백신 접종 안했을 가능성 커

(충북·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 젓소농장과 주변 축산농가의 항체 형성률이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또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에 새로운 숙제를 남겼다.

구제역 이후 벌어지고 있는 농가의 백신 접종 소홀, 물백신 논란, 접종 방법의 문제, 곁할 기식 조사방식 등 책임공방을 정리해야 할 입장에 처한 것이다.

축산농가들과 전문가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축산농가 백신 접종 소홀 논란 중심에

충북도는 8일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보은군 마로면 젓소농장의 반경 500m내 한·육우 사육농가 9곳의 항체 형성률을 검사한 결과 평균 54.4%에 그쳤다고 밝혔다.

반경 3km내 젓소 사육농가 11곳도 평균 73%로, 이중 2개 농가는 항체 형성률이 0%였다. 백신접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50% 미만인 6곳 등 기준치인 80%에 미치지 못하는 농가가 11곳에 달했다.

소의 항체 형성률이 80% 미만이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항체 형성률이 기준치(80%)에 미달하면 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앞서 구제역 발생농장의 항체 형성률은 19%였다. 21마리를 검사한 결과 4마리에서만

항체가 발견됐다.

2차 구제역 발생지인 전북 정읍의 한우농가의 항체 형성률은 고작 5%였다. 20마리를 검사했는데 1마리에서만 항체가 나왔다는 얘기다.

당연히 축산 농가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가 나서 "백신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접종하지 않은 농가가 있었다"고 농민 탓을 해 논란을 부추겼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해당 농가에선 백신을 제대로 접종했다고 밝혔지만 접종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 "백신 못민들었다" 농민들 반발

이에 보은 구제역 발생농장 농장주는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구제역 발생의) 책임을 농가에 돌리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정읍의 농장주도 비슷한 취지로 항변했다. 보은의 한 농장주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무슨 일만 터지면 농민들이 죽일 놈이 된다"며 "차라리 이참에 정부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혈청 검사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조호성 전북대 수의대 교수는 접종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조 교수는 "백신을 보관하는 냉장실 안쪽의 온도가 고르지 못해 백신이 어는 경우가 있다"며 "백신이 얼면 효능이 없기 때문에 폐기해야 하지만 살짝 언 상태의 백신을 그냥 쓸 확

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런 반박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백신 효능에 대한 의문으로 확산됐다. 이른바 '물 백신' 논란이다.

이는 지난 2012년 구제역 대확산 때 일부 수입 백신이 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당시 효과가 미약한 구제역 백신 구입에 들어간 정부 예산이 200억원에 달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문제가 된 수입 백신의 항체 형성률은 돼지를 기준으로 26%에 불과했다.

◇ 정부의 백신 정책 도마위에

정부는 지난해 전국의 백신 항체 형성률은 소 97.5%, 돼지 75.7%라고 밝혔다. 이 수치대로라면 소의 경우 구제역이 발생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구제역이 발생한 뒤 조사에서는 0%, 5%, 19% 등 턱없이 낮은 수치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발표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

는 것과 관련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기존 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검역본부는 "전체 사육두수와 상관없이 농가 1곳당 무작위 선정간 소 1마리만 검사해 항체 형성률 조사한다"면서 "표본조사 주기와 방식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운 좋게 1마리만 항체가 형성돼도 100%로 집계되는 오류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류영수 건국대 수의학과 교수는 "가축전염병이 생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제가 없을 뿐 아니라 예방용 백신조차 제대로 개발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말했다.

그는 농가의 모럴헤저드 논란에 대해서도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게을리했거나 접종시기를 잊었던, 아니면 백신 자체의 문제가 있었던, 접종 방법상의 문제가 있었던 국가가 좀더 신경을 써서 사전에 적절한 검사와 감시를 통해 미리 대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pine@news1.kr



충북 보은군의 한 젓소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6일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이 구제역 대책 상황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주승원
617.780.7839



박성종
617.304.7001



William Glanton
978.394.2017

안녕하세요?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Opportunities를
찾으시는 손님들이나
파시기 원하시는 손님들은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s &
Commercial Division에서는
미주 각주에서 들어 오시는
큰 회사로 오시는 손님들을
직접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에만
2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저희 회사의 연결망에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백영주 올림



Allen Quinn
978.897.2781



이현주
401.935.3397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Kevin Curry
978.852.296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Steve Son
617.290.0623



Shell Yu
781.526.2416



OT Kim
617.620.8242



Gina Choi
978.866.3248



Al Magurn
508.733.2949



OFFICE LOCATIONS



- | | |
|--|--|
| Massachusetts
Corporate HQ
Belmont
Concord
Easton
Framingham
Littleton
Maynard
Norwood
Plymouth
Woburn
Westborough
Whitinsville
Wrentham Port | Maine
Kennebunk
Portland
Saco
Sanford

Rhode Island
Newport |
|--|--|

LEXINGTON/BOSTON OFFICE

18 Offices in Maine, Massachusetts & Rhode Island



Maria Koral
978.973.6043



Nancy Marcis
713.817.6970



Clif LaPorte
978.424.3045



Leslie Luppold
508.423.1535



Angela Eleazar
617.319.6657



Vicky Xiao
617.480.6362



Johanna Parlon
978.501.4753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수퍼볼 51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기록들

(보스톤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영화보다 더 극적인 역전승을 일궈내며 패트리어츠가 수퍼볼 51에서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이날 새로 만들어진 기록들은 무수히 많지만 특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몇 가지 기록들을 모아봤다.

1. 탐 브래디가 50번 이상 패스 시도를 했을 때 패트리어츠는 포스트시즌에서 5승 2패

추가로 브래디가 60번 이상 패스 시도를 했을 때 패트리어츠는 포스트시즌에서 무패다. 이번 수퍼볼에서 브래디는 62번 패스 시도에 43번 성공, 466야드를 전진했다. 이 모든 숫자가 수퍼볼 기록이다. 포스트시즌에서 브래디의 기록은 어떤 선수도 넘볼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이제껏 어떤 쿼터백도 50번 이상의 패스 시도에서 브래디만큼 성공을 거둔 적이 없다. 포스트시즌에서 패스 중심으로 경기를 펼칠 때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선수는 브래디가 거의 유일한 선수다.

2. 패트리어츠가 경기를 리드한 시간은 0초

수퍼볼 51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NFL 역사상 가장 극적인 경기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연장전에서 서든데스 방식(

먼저 터치다운을 성공하는 팀이 승리)으로 우승팀이 가려진 첫 수퍼볼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수퍼볼에서 패트리어츠는 15분씩 4번의 쿼터와 연장전 동안 한 번도 경기를 리드한 적이 없다. 연장전에서 제임스 화이트가 터치다운을 성공시키며 처음으로 경기에서 리드를 잡았지만 그와 동시에 경기는 끝이 났다. 수퍼볼 경기 내내 한 번도 점수를 앞서 나가지 못한 팀이 결국 수퍼볼 챔피언이 된 것이다.

3. 수퍼볼 51은 패트리어츠가 가장 큰 점수 차이로 이긴 수퍼볼

이전까지 4번의 수퍼볼 우승을 차지할 때 패트리어츠는 모두 접전 끝에 아슬아슬하게 승리했다. 경기 종료와 함께 필드골이 성공하며 승리를 거둔 적도 있다.

지난 17년 동안 패트리어츠는 NFL 최강팀으로 불렸지만 한 번도 수퍼볼 경기에서 상대팀을 압도하지는 못했다. 이번 수퍼볼 51에서 연장전에 터치다운을 성공시키며 6점 차이로 승리한 것은 패트리어츠 수퍼볼 역사상 가장 큰 점수 차이로 승리한 것이다. 수퍼볼 51 이전의 4번의 우승은 모두 3점, 혹은 4점 차이로 승리했다.

4. 인터셉션-터치다운을 성공시킨 팀의 수퍼볼 기록은 12승 1패



NFL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수퍼볼 경기를 끝으로 올해 풋볼 시즌도 끝이 났다

브래디가 4쿼터와 연장전에서 기적 같은 역전승을 일궈내며 모든 이를 놀라게 했지만, 반대로 상대팀인 팰콘스도 다른 의미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다. 2쿼터에 팀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브래디는 최악의 패스로 인터셉션을 당했다. 팰콘스의 로버트 알포드는 브래디의 패스를 가로채 82야드 터치다운을 성공시켰고, 팰콘스는 21대 0으로 점수 차이를 더욱 벌렸다.

수퍼볼 51 경기 이전까지 인터셉션을 바로 터치다운으로 성공 시켰던 팀

의 수퍼볼 전적은 12승 0패였다. 팰콘스는 수퍼볼 역사에서 상대팀의 패스를 가로채 바로 터치다운까지 성공했지만 패배한 첫 번째 팀이 되었다.

5. 패트리어츠의 엑스트라 포인트 0 경기 종료까지 1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니 아멘돌라가 투-포인트 컨버전(Two-Point Conversion, 터치다운 후 한 번 더 터치다운을 성공시키면 2점을 득점)에 성공하며 패트리어츠는 처음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

전에 3쿼터에서 패트리어츠는 첫 터치다운을 성공한 후에 주어진 엑스트라 포인트 기회에서 스티븐 고스쿠스키의 킥이 빗나가며 1점을 날렸다.

패트리어츠는 4쿼터와 연장전 동안 팰콘스에게 단 1점도 허용하지 않고 내리 25득점을 올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2번의 투-포인트 컨버전만이 있었고 1점을 얻을 수 있는 엑스트라 포인트는 없었다.

jsi@bostonkorea.com

美매체 "오승환 2017시즌에도 마무리 투수"

(서울=뉴스1) 맹선호 기자 = 2017 시즌에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마무리투수는 '돌부처' 오승환(35)이다.

야구 전문통계사이트 '팬그래프 닷컴'은 8일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팀들의 전력을 분석하면서 오승환이 작년처럼 마무리투수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했다.

매체는 "오승환은 지난해 경기를 마무리할 기회에서 많은 아웃 카운트를 잡아냈다"고 높이 평가했다. 오승환은 지난해 23번의 세이브 기회를 맞아 19세이브를 기록했다.

매체는 오히려 "카디널스의 최대 고민은 마무리가 아닌 셋업맨이다. 브렛 세실과 케빈 시그리스트가 셋업맨 자리를 두고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승환은 지난해 전반기에 주로 셋업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오승환

맨으로 출전했지만 당시 마무리 트레버 로젠탈의 부진으로 클로저로 올라섰다.

오승환은 2016년 76경기(79%이닝)에 나와 6승3패 19세이브 평균자책점 1.92를 기록하며 '끝판왕'의 면모를 보였다.

지난달 미국으로 출국해 시즌을 준비 중인 오승환은 오는 3월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참가한 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메이저리그 2년 차를 맞는다.

maeng@news1.kr

미네소타, 결국 박병호 웨이버 공시 29개 팀 선택 기다려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미네소타 트윈스의 내야수 박병호(31)가 구단으로부터 웨이버 공시됐다. 이제는 미네소타를 제외한 29개 팀의 선택을 기다리는 입장이 됐다.

미국 미네소타 지역지 '미네소타 파이오니어프레스'지의 마크 버라디노 기사는 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주에 방출대기 처분(DFA·양도선수지명)을 받은 박병호가 웨이버 신분이 됐다. 계약상 그는 925만달러의 연봉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미네소타는 지난 4일 새로 영입한 우완 투수 맷 벨라일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박병호를 방출대기 시켰다. 미네소타는 박병호를 40인 로스터에서 제외시킨 뒤 트레이드를 시도했지만 무산됐고, 결국 웨이버에 올랐다.

박병호는 타 구단에서 양수의사를 밝힐 경우 유니폼을 갈아입을 수 있다. 29개 구단은 지난 시즌 순위의 역순으로 박병호에 대한 클레임(양수)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의 연봉 925만달러를 보전하는 조건이다.

반대로 어느 팀도 그를 원하지 않을 경우 미네소타는 박병호를 마이너리그로 보낼 가능성이 커진다.

2016시즌을 앞두고 1285만달러의 포스팅에 미네소타와 계약을 맺은 박병호는 데뷔 첫 해 부상과 부진에 시달리며 타율 0.191 12홈런 42타점의 성적에 그쳤다.

손가락 부상으로 수술대에 올라 조기에 시즌을 마쳤던 박병호는 심기일전하며 재활에 집중했다. 지난

2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떠났던 그는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방출대기 처분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로서는 박병호가 타 팀 이적보다 마이너리그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 스포츠매체 '폭스스포츠'는 8일 "미네소타는 박병호의 트레이드가 불발돼도 그를 방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바 있다.

alexci@news1.kr



미네소타 트윈스의 내야수 박병호(31)

POSPay

worldpay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직도 카드를 긁고 계십니까?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EMV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본손: Boston



돼지곰: NJ



Mr. Sushi: Arlington



VIP Nails: RI



Queena Nails



Great Nails: GA



My Cleaners: CT



Classic Cleaners: Boston



Professional Cleaners: GA

<고객 절약 사례>
본손: 20% 절약
돼지곰: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a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성양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s Episcopal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English Mass)
오전 10시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30분

매달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토) 오전 10시 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45 Ash St. Newton MA02466 / 617-558-2711, 617-244-9685
office_kccb@gmail.com /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의
보스톤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길은 살아가신 하나님의 길이고 사랑과 기쁨의 길입니다 (행 9:31)

주일예배 / 오후 2시 | 금요기도회 / 저녁 7시
송년 / 송년 / 초빙 / 경외동부교회 / 생연부요청
Grace Bible Study / 수 12시 | LIFE 모임 / 주일 8시

담임 목사 / 무지함

7 Clarendon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보스톤 밀알 한인 장로교회

가르치고 전파하라
(약 4:25)

예배시간:
주일 1부 9:30, 2부 11:00
금요일 9:00

밀알한국학교 운영(주일 오후)

담임목사: 박일종

주소: 15 Alpha Rd.,
Chelmsford MA 01824
전화: 978.537.9117
www.milal-church.org
Lexington에서 25분,
H-14에서 15분 거리

유체부: 임성경 목사
유년부: 임경숙 목사
유소: David Hwang 권도사
영남/360 Erika Kim 권도사

성경대로 열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SARANGJELGIL CHURCH

담임목사: 권종성
Faith Theological Seminary, Ph.D.
New York Univ. M.F.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전 10시
주일 학교	오전 11시
평일 예배	오전 10시
목요 예배	오전 7시
수요 예배	오전 7시
구별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ynn, MA 01904 Tel: (978) 985-0285, (978) 944-2404
www.sarangjil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공교동부: 오후 2시 |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8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9: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9월-5월)
우스터한인학교: 월 9:30-11:30

담임목사: 김현덕
817.730.4178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902.790.4488
<http://www.wkmc.org>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CHOISIGNS & DESIGN

LED Signs,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사렛에 대해 알게 하겠다. 그로써로 구원을 얻는다. 그로써로 구원을 얻는다. 그로써로 구원을 얻는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송년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30
영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주일 속회별
영년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6:50, 목 오후 9:30

비전교회
The pastor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port, MA 02472 Tel: 617.744.8587
www.growwithus.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t UP SOLUTION

내외는 뉴저지 본사에서 카드결제 관련회사에서 미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와 2it카드 결제, 가짜서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최적의 결제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내외 비즈니스가 성공하려면 **이선호**
781.266.7245



HAPPY

해피돌상

고급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고품격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음료를 더하는 최첨단 현수대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류와 천기, 골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국제법 전문 로펌 Immigration Law/International Law/Customs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주재원 비자 (L-1)
- 취업이민 (EB-2, EB-3, EB-4)
- 투자이민 (EB-5)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미국 세관 CBP 압류재산 회수
- 단기연수원 비자 (H-3)
- 특가자 비자(O-1, P-1)
- 종교비자 (R-1)
- 투자비자 (E-2)
- 가족초청이민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wyer.com

Crouser & Suh PLLC

1309 Beacon S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Tel: 617.274.5723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에이어에 있는 청계식품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합니다
T. 978-772-5213

렉싱턴에 있는 식당. 웨이터 또는 웨이 트레스 및 주방에서 일하실 분 구함.
T. 781-860-0171 (Kay)

생선가게(매타팬)에서 생선 판매 및 케시어 하실 분(풀타임) 구합니다.
T. 603-401-4986

MA 운전면허증

- 신규 및 갱신 (Renewal)
- 타주면허증 당일 재발급
- 한국면허증 소유자 무시험 교환
- 소셜번호 없는 분도 환영
- * 운전면허 어려움 있는 분 상담

T: 857.615.1416, 917.340.0595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4989 부동산 매각하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메사추세츠주 태권도 협회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MSTA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고문단장: 안 남 열 고문: 이 강 원

고문: 구 정 희 고문: 조 형 구

회장: 정 제 형 부회장: 허 훈 부회장: 리치안 사무총장: 전 명 호 회계: 김 희 용

웹사이트: 강 창 남
시범단장: 홍 순 우
경기위원장: 강 민 석
심판위원장: Michael Agosti
홍보부장: Maureen Maher-Killelea

www.masta.us

KUKKIWON USA TAEKWONDO

2016년 메사추세츠 주 태권도 협회원 가입현황
*단체회원(\$200/년): 정제형, 허훈, 리치안, 홍순우, 김희용, 전명호, 강민석
*정회원(\$100/년): 강창남

370 Boston Tpk., Shrewsbury, MA 01545
Phone 508-792-5534 . FAX 508-767-0113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견인	617-338-2352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메이역	617-3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이동보호	617-4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하	617-351-4500
펠러버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선교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NE)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야동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약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광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리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의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한인교회	603-437-5134
라이코스교회	603-264-6799
라이스한인침례교회	978-387-1115
로어일랜드성동교회	508-926-8236
로어일랜드제일교회	401-353-0983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944-2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양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글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617-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장로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침례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세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타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타장로교회	781-354-1843
임팩트프린터 교회	918-876-2815
임파뉴얼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어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브랜드스머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팡사이딩 청문	617-999-9616
이놀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Hana Rehab Clinic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대교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에이저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컨/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타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래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달궁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 헤어	508-734-0446
케이티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희 헤어(B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샵롱	508-879-7777
MIN-AH MAKEUP	508-617-7122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대상 대여/폐백

해피대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경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9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9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셀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의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	--------------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하버드뱅크(이재용)	617-421-2282
한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	--------------

심리상담

배우진심리상담	617-566-1055
---------	--------------

심리상담

김자함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	--------------------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추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톤컨테드카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
-------	-----------

"늘어나는 뱃살, '허리 디스크' 발병 위험 높인다"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강남 연세사랑병원' ... "허리 디스크 · 척추관 협착증, 근본 원인 해결이 중요"

이번주 휴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나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척추 질환 중 허리 질환에 대해 휴람 네트워크 강남 연세사랑병원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몸의 중심에서 기능역할을 하고 있는 부위는 허리다. 허리에 문제가 생기거나 다치면 몸을 지탱하거나 지지해주는 역할이 사라지면서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생긴다.

허리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노화도 빨리 진행돼 여러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 질환이 발생하면 허리와 골반 통증까지 느끼게 되고, 다리가 저리거나 아픈 통증까지 진행될 수 있다.

앉아서 업무를 보는 일도 어려워지고, 다리가 저리고 아파 걷거나 활동하는 일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허리통증이 있는 즉시 정확한 검진을 통해 치료를 병행하며 일상생활에서 허리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허리에 생기는 문제로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허리디스크와 척추관협착증으로 전문가들은 이들 질환 치료를 위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손준석 강남연세사랑병원 원장에 따르면 허리디스크는 디스크의 쿠션 역할을 하는 수핵이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면서 통증을 일으킨다. 신경이 눌리면서 허리통증과 다리로 뻗치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며,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통증을 느낀다.

척추관협착증은 척추뼈 뒤에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 자체가 좁아



지기 때문에 허리보다는 다리가 저리고 아픈 통증을 호소하며,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특히 아프다.

손준석 원장은 "이들 질환은 지속적인 요통 및 다리통증을 일으키며, 앉거나 걷는 등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통증을 줄이고 질환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 원장에 따르면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평소 올바른 자세와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척추 근육을 높여줘야 한다. 의자에 앉는 경우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허리를 등받이에 대 허리가 받는 부담을 줄여주는 게 좋다.

앉아 있다가도 틈틈이 일어나 허리 스트레칭을 하고 걷거나 수영 등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높일 수 있는 운동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또 허리질환에 적용되는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 고려하는 게 좋다. 손 원장은 "경막외 유착박리술 등 비수술적 치료는 최소절개로 진행돼 척추 주

변 근육이나 뼈에 손상을 주지 않고 효과적인 결과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이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적용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있다"며 "허리통증은 방치할수록 큰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에 올바른 대처방법을 고민해 보는 게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 **복부비만, 지속적으로 허리에 충격 '추간판 탈출' 발병 원인** : 복부비만은 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재적인 문제를 많이 안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다. 무엇보다 복부는 허리와 근접해 있는 곳으로, 복부가 비만할수록 지속적으로 충격을 주면서 척추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 복부에 과도한 지방이 쌓이면, 척추가 받는 충격이 더커지면서 쉽게 피로해질 수 있다.

강남 연세사랑병원 손준석 원장은 "복부비만은 몸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되면서 잘못된 자세와 걸음걸

이를 취할 위험이 많고, 지속적인 충격을 받으면서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복부비만이 지속되면 추간관의 변형을 발생시키면서 허리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허리 숙일 때 통증은 '디스크', 뒤로 젖힐 때 통증은 '협착증'** : 척추 디스크가 정상적인 위치를 탈출하여 척추의 경막이나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이 '허리디스크'다. 복부비만이 지속될 경우 허리에 무리가 가해지면서 허리디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고, 잘못된 자세와 허리에 무리를 주는 행동들이 지속되면서 발생할 수 있다. 허리디스크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허리 부위 통증이며, 신경이 눌리면서 엉덩이-다리-발 순서로 저리고 당긴 느낌을 받는다. 주로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통증이 발생하며, 휴식을 취해도 허리에 묵직한 통증을 느낀다. 디스크 못지않게 많이 발병하는 '척추관협착증'은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을 느낀다는 점

에서 디스크 질환과 미세한 차이가 있다.

디스크는 지속될수록 통증을 더 심화시키며, 발가락 힘이 빠지면서 걷기 힘들어지거나 하반신에 감각이 없는 증상까지 느낄 수 있다. 때문에 휴식을 취해도 낫지 않거나 지속적인 허리 및 다리가 저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를 의심해 보고 전문의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 **보존 치료 후 호전 없다면 '유착박리술'로 통증 원인 치료해야** : 디스크는 초기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주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여 증상을 호전시킨다. 만약 이러한 보존적 치료로도 호전이 없다면,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디스크 주위 염증과 통증을 개선하여 치료할 수 있다. '경막외 유착박리술'은 신경 주위에 카테터를 삽입한 후 약물을 주입하여 염증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카테터가 삽입될 만큼의 최소절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손준석 원장은 "허리디스크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 보존적 치료와 시술법을 시행할 수 있으며, 평지 걷기와 통증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허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근력운동을 실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시술적 치료방법 중 경막외 유착박리술은 만성 허리 통증 환자나 수술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이 시행했을 때 통증을 빠르게 경감시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치료"라고 설명했다.

BOSTON GONSTEAD CHIROPRACTIC

"카이로프랙틱이란?" : 우리 몸은 남녀노소 모두 33쌍의 척추신경을 가지고 있으며 뇌로부터 이 신경을 통해 신호를 몸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전달해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 폭, 교통사고나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척추가 어긋나게 되면서 척추신경 압박 및 압통으로 뇌로부터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여 우리 몸에 통증과 같은 이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척추의 어긋난 곳을 정확하게 찾아 가장 안전하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카이로프랙틱입니다.

개인기밀 특별

- 카이로프랙틱 상담
- 당일 척추 정렬 (200,000원)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요보험: 일반보험(PO), 후쿠에이, 한국/유학생/이민자/교통사고 보험 등 다수



원장 : Dr. 유정호, D.C.
(Dr. Jeongho Yoo, D.C.)

- Graduated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Seminar of Chiropractic
- Member of Gonstead Methodology Institute
- Certified International Board of Extremity Chiropractors
- 한양대학교 졸업 및 ROTC 47기
- Active license in MA(#3524)

- 진료과목**
- 척추계통 : 목 / 목 / 허리 / 골반 통증, 디스크 질환
 - 사지계통 : 어깨, 무릎, 손목, 발목, 턱관절 통증
 - 신경/순환 계통 : 손발 저림, 좌골신경통, 두통, 알러지, 소화불량
 - 교통/재정/운동 사고: 물리치료와 병행하여 후유증 해소
 - 어린이/학생/성인 자세 관련 행동 및 척추측만 교정

진료시간

월-금(M-F) : 9am-5pm
토(Sat) : 10am-12pm
일(Sun) : Closed



'루시드 드림', 고수X설경구 기억 추적 스릴러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한국 영화 최초로 '스스로 자각한 채 꿈을 꾸는 현상'인 루시드 드림을 소재로 한 영화 '루시드 드림'이 신비로운 분위기로 시선을 압도하는 메인 예고편과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오는 2월22일 개봉하는 '루시드 드림'은 대기업 비리 전문 기자 대호(고수 분)가 3년 전 계획적으로 납치된 아들을 찾기 위해 루시드 드림을 이용, 감춰진 기억 속에서 단서를 찾아 범인을 쫓는 기억추적 SF 스릴러다.

공개된 메인 예고편은 루시드 드림을 통해 꿈 속에서 범인의 단서를 찾는다 신선한 스토리부터 지금껏 본 적 없는 새로운 비주얼과 긴장감 넘치는 추격 액션까지 담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을 땔 수 없게 만든다. 메인 예고편은 "사람들은 꿈을 꿀 때 고유의 뇌파 주파수를 가져요. 본인의 주파수와 상대방 주파수를 일치시키면 그 사람 꿈 속으로 스텝"이라는 대사로 시작, 한국 영화에서 처음 다루는 루시드 드림의 세계관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 아들을 잃어버린 3년 전 그 날이 생생하게 펼쳐지는 대호의 루시드 드림을 보여주는 가운데 범인의 단서를 발견해 이를 추적하는 대호의 모습은 앞으로 펼쳐질 극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여기에 카리스마 넘치는 실종 사건 담당 형사 방섭과 대호의 친구이자 정신과 의사 소현의 지적인 모습 또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한다.

그 뿐만 아니라 메인 예고편 후반부에 몰아치는 추격신, 자동차 액션, 초고층 건물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장면은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영화 속 압도적인 스케일을 확인케 한다. 마지막으로 무너지는 건물 속으로 몸을 내던지는 대호의 마지막 대사 "그 사람 만날 수 있는 길이 꿈 속밖에 없어요"는 루시드 드림을 통해 범인을 추적하는 집요함부터 가슴을 울리는 부성애까지 보여 줄 것을 예고, 그가 '루시드 드림'에서 보여줄 연기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메인 포스터는 루시드 드림을 이용, 꿈 속에서 납치범의 단서를 추적하는 대호의 강렬한 눈빛과 그런 그를 돕는 실종 사건 담당 형사 방섭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 이내 눈길을 사로잡는다. 여기에 대호와 방섭 머릿 속에 펼쳐진 세계는 꿈인 듯 현실인 듯 분간하기 어려운 루시드 드림을 표현해 독보적인 비주얼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메인 포스터에 자리 잡은 "꿈 속에 범인이 있다", "범인도 단서도 오직 꿈 속에 있다"는 카피는 루시드 드림 소재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하는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극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더해준다. 그 뿐만 아니라 "기억추적 SF 스릴러 '루시드 드림' 태그라인은 장르의 확장성을 보여주며,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새로운 차원의 스킬을 선사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aluem_chang@news1.kr

'썰전' 출연 문재인 전원책에게 "나보다 선배인 줄"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썰전'에 출연한다.

9일밤 10시50분 방송되는 JTBC '썰전'에서 지난주에 이어 '차기 대선주자 릴레이 썰전' 코너가 방송된다.

이번 주 출연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로 MC 김구라의 진행으로 유시민, 전원책의 날선 질문 공세가 펼쳐졌다.

김구라는 문재인 전 대표의 이력을 소개하던 중 "전원책 변호사님과 문재인 전 대표님

이 경희대학교 법대 동문이다. 두 분 (학번 차이가) 어떻게 되시나?"라고 물었다.

이에 전원책은 "(문재인 전 대표가) 내 선배님이다. 나는 노노라 학교를 천천히 갔다"고 학연 관계를 설명했다.

그러자 문재인은 "나는 전 변호사님이 선배인 줄 알았다"고 털어냈고, 이에 전원책은 "내가 (그럴 줄 알고) 일부러 염색을 하고 왔다"며 셀프 디스를 해 웃음을 자아냈다.

reddgreen35@news1.kr



'신서유기3' 강호동X이수근 형님들의 웃음 하드캐리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강호동과 이수근이 tvN '신서유기3'를 통해 형들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최근 방송된 tvN '신서유기3'에서는 폭탄 알람시계가 울리는 방을 제외한 멤버들이 아침식사를 먹게 되는 기상미션이 주어졌다.

강호동은 이 미션의 지배자로 맹활약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강호동은 안재현과 규현이 자신의 방에 숨겨 둔 폭탄 알람시계를 발견하곤 두 사람의 방 뒤쪽의 화단에 숨겨 놓은 뒤, 미션 마감시간까지 동생들의 작전에 속아주는 척 능청스럽게 연기를 펼쳐 모두의 허를 찔렀다.

이에 더해 이수근은 기상미션 중 아무도 오지 않는 방문 앞에서 홀로 문을 지키며 고군분투 하는 막내의 부름에 한달음에 달려와

장단에 맞추어 주며 깨알 같은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다.

이처럼 강호동과 이수근은 이제는 척하면 척 동생들이 어떤 리액션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까지도 꿰뚫고, 방심하는 사이 생각지 못한 웃음 폭탄을 던지는가 하면, 다년간의 예능 내공으로 반전의 상황들을 만들어 내는 등 '신서유기3'를 역대급 시즌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중국 계립 여행이 마무리 되고 사면으로의 두 번째 여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강호동과 이수근이 멤버들과 어울려 이번 여행에서는 어떠한 웃음 폭탄을 선사하게 될 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ddgreen35@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7년 1월 30일 ~ 2017년 2월 5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주말연속극(월계수양복점신사들)	33.1%
2	KBS1	일일연속극(빛나라은수)	25.0%
3	KBS2	일일드라마(다시첫사랑)	20.4%
4	MBC	주말드라마(불어라미풍아)	20.3%
5	SBS	월화드라마(피고인)	18.0%
6	SBS	그것이알고싶다	15.5%
7	KBS1	KBS9시뉴스	15.3%
7	KBS2	해피선데이	15.3%
9	SBS	정글의법칙N코타마나도	14.5%
10	SBS	K팝스타더라스트찬스	14.2%

Tbo Play 주간시청률

1	MBC	주말드라마(불어라미풍아)
2	KBS2	TV소설(저 하늘의 태양이)
3	KBS2	주말연속극(월계수양복점신사들)
4	SBS	일일드라마(사랑은방울방울)
5	SBS	드라마스페셜(사임당빛의일기)
6	MBC	일일연속극(행복을 주는 사람)
7	KBS1	일일연속극(빛나라은수)
8	MBC	일일특별기획(황금주머니)
9	MBC	MBC아침드라마(언제나봄날)
10	SBS	월화드라마(피고인)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노래	Zion.T
02 Complex (feat. G-DRAGON)	Zion.T
03 좋다고 말해	볼빨간사춘기
04 미안해 (feat. Beenzino)	Zion.T
05 기다렸다 가	다이내믹 듀오
06 에라 모르겠다	BIGBANG
07 오랜 날 오랜 밤	악동뮤지션
08 당신의 밤 (Feat. 오혁)	황광희 X 개코
09 행복한 척	수지
10 Rookie	레드벨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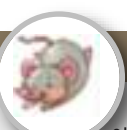
숫자 퍼즐 (Sudoku)

		7					4		
	1						2	6	7
			2	8					
4					3			2	6
		3	5		2	8			
7	2		1						9
				1	4				
6	3	4						7	
	7						4		

2월 12일 - 2월 18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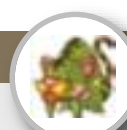
쥐띠 | 원칙을 고수해야

● 운수: 당장은 편한 것 같아도 흔들리지 말고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결국은 바른 것이 이깁니다. ● 금전: 순리대로 흘러가야 일도 잘 성사됩니다. 특히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줍니다. ● 애정: 미사여구가 들어간 화려한 말보다도 진정성이 담긴 한마디가 더 강한 힘으로 상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4, 17일 길일. 12, 15일 주의.



소띠 | 배짱이 있어야

● 운수: 무조건 앞으로만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잘 안 돌아간다는 신호가 오면 잠시 멈춰서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 금전: 약간의 화생이 필요합니다.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눈앞의 적은 이익은 내어주는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 애정: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다가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5, 18일 길일. 13, 16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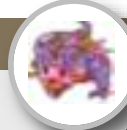
범띠 | 잠시 쉬면서 숨을 고를

● 운수: 코앞에 있는 자신의 일을 처리하기에도 벅차서 다른 일에는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 금전: 잠시 쉬면서 숨을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보낼 때에는 제대로 된 판단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 애정: 의견을 합쳐야 할 일을 두고 서로가 딴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당장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2, 16일 길일. 14, 17일 주의.



토끼띠 | 도처에 귀인이 있으니

● 운수: 긴 시간 고민하게 하던 일이 명쾌하게 해결됩니다. 날아갈 듯이 흥분해버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원가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처에 귀인이 있으니 활동범위가 넓을수록 자신에게 득이 될 것입니다. ● 애정: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았던 고민과 갈등의 늪에서 벗어납니다. 한결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3, 17일 길일. 12, 15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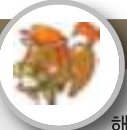
용띠 | 비교적 원만하게

● 운수: 행운의 여신의 저울이 내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조금은 힘이 들고 번거로우도 자신이 직접 나서서 손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비교적 원만하게 흘러가는 운세입니다. 맘을 흘려서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애정: 자꾸 생각하게 되고 모습이 떠오르는 사람이 생기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4, 18일 길일. 16, 17일 주의.



뱀띠 | 다시 잘 생각해야

● 운수: 남이 하는 말에 지나치게 신경 쓰거나 마음 상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런저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 금전: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가급적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동구매로 인해서 돈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 애정: 다시 잘 생각하세요. 한 번 믿음이 깨진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도 어렵고 오래 지속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2, 15일 길일. 14, 17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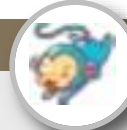
말띠 | 무조건 들어주고 믿어주는

● 운수: 무슨 일이든 경우에 맞게 행동하고 상식선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더디게 가고 답답한 것 같아도 제대로 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 금전: 밖에 일이 잘 되어도 집안이 편안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돈 버는 것도 좋지만 가족에게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때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들어주고 믿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3, 16일 길일. 15, 18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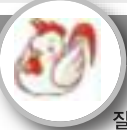
양띠 |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 운수: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일이 뒤죽박죽되어 엉킨 실태처럼 풀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 금전: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들어오자마자 나갈 일이 생깁니다. ● 애정: 다시 한 번 생각하세요. 지금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내린 선택이 지나고 보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2, 17일 길일. 16, 18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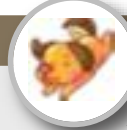
원숭이띠 | 항상 침착하게

● 운수: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항상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보다 나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 금전: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생각지도 않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침착하게 꼼꼼하게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처음에는 사랑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가 않아서 힘든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5, 18일 길일. 12, 17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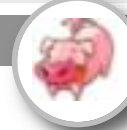
닭띠 |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 운수: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세요. 자식이 하는 잘못된 고스란히 부모가 지고야 할 몫이 됩니다. ● 금전: 자신이 지금 힘들게 열심히 쌓고 있는 것이 금방 무너질 모래성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보세요. ● 애정: 한쪽에서는 하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 하지 마라 하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4, 16일 길일. 12, 18일 주의.



개띠 |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 운수: 정성을 들이고 신경을 쓴 만큼 그에 보답하는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니 힘든 시간이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 금전: 굳이 큰 변화를 주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해가면서 더 나은 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매상이 증가할 것입니다. ● 애정: 모처럼 마음이 통하는 상대를 만나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2, 14일 길일. 13, 18일 주의.



돼지띠 | 솔직하게 털어놓고

● 운수: 당장은 인정받지 못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때를 기다리면서 기회를 보아야 합니다. ● 금전: 정상적으로 일한 것에 대한 결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불로소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애정: 혼자서 속앓이를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해결책도 생기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13, 18일 길일. 14, 17일 주의.

'컴백' 홍진영, '사랑 한다 안한다' 新 트로트 돌풍 예고

(서울=연합뉴스) 김나희 기자 = 트로트가수 홍진영이 신곡 '사랑 한다 안한다'로 컴백한다.

홍진영은 오는 9일 자정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싱글 '사랑 한다 안한다'를 발매한다.

'사랑 한다 안한다'는 오리엔탈 풍의 세미 트로트로, 사랑에 빠진 여자가 꽃잎을 하나씩 떼어내며 사랑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노랫말이 인상적이다.

또한 전주 부분부터 흘러나오는 애절한 하모니카 연주는 멀티악기 연주가 권병호가 참여해 곡의 완성도를 높였다. 홍진영의 애절한 보이스와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새로운 국민 트로트의 탄생을 예고한다.

홍진영의 '사랑 한다 안한다'는 그간 SG워너비의 '라라라'·'내사랑'과 태연의 '사랑해요', 빅뱅의 '눈물 뿐인 바보' 등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작곡가 안영민의 작품으로, 그가 과연 트로트 장르에서도 히트곡을 탄생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뮤직비디오 또한 새로운데, '사랑



한다 안한다'의 뮤직비디오는 영화 '조작된 도시'의 OST로 삽입되는 만큼, 영화의 하이라이트를 엮어 완성됐다. 박진감 넘치는 액션과 홍진영의 간드러지는 음색이 어우러져 한편의 뮤직드라마로 탄생된 것이다.

또한 홍진영은 본업인 가수로서의 컴백은 물론 KBS '언니들의 슬램덩크 시즌2'의 멤버로 합류하며

음악 방송을 비롯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홍진영은 지난 2009년 '사랑의 배터리'를 시작으로 '산다는 건', '내사랑', '부기맨', '사랑이 좋아' 등 다수의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nahee126@news1.kr



'해투3' 최민용 "하하 탄생시킨 건 유재석 아닌 나"

(서울=뉴스1스타) 김나희 기자 = 배우 최민용이 절친인 가수 하하에게 굴욕을 선사했다.

최민용은 최근 진행된 KBS2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3' 녹화에서 본인의 출연이 하하의 추천이었다는 말에 "아주 그릇된 정보"라고 못박아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제작진이 나를 섭외할 때 하하가 '해피투게더3'에서 누군가를 띄우겠다고 하는데 다소 불안하고 걱정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도와주러 나온 것이다"라고 설명해 폭소를 유발했다.

이어 최민용은 하하가 남의 인지도를 올릴 군인이 아니라고 설교했다. 그는 "나라도 나서서 하하의 인지도를 올려줘야겠다. 여러분 제 동생 하하"라고 카메라를 향해 데뷔 16년 차 예능인 하하를 소개해 배짱을 잡게 만들었다.

더욱이 최민용은 "하하를 탄생시킨 건 나고 성장시킨 건 유재석"이라면서 '하하 조물주론'을 설교했고, 이에 발끈한 하하가 본인이 챙겨줘야 할 패러지조는 방치하고 최민용과의 전쟁을 선언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nahee126@news1.kr

GD "칼 라거펠트보다 정형돈, 바뀐 번호 못 받았다"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지드래곤이 칼 라거펠트보다 정형돈을 선택했다.

빅뱅은 8일 오후 6시 방송된 MBC 에브리원 '주간 아이돌'에서 각자 인맥을 공개했다.

답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잘 안

만난다. 술을 마시러 집에 온다"며 이정재, 정우성과 친하다고 했다. 이어 승리는 발렌시아 FC 구단주와 친하다고 밝혔다.

지드래곤은 정형돈을 지목했다. 지드래곤은 "얼마 전 형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는데 없는 번

호라고 나왔다"고 폭로했다. 왜 바뀐 번호를 안 알려줬냐고 묻자 정형돈은 "연예인 번호 막 주는 거 아니다"고 답했다. 하지만 퍼렐 윌리엄스와 정형돈 중에서는 퍼렐을 선택해 정형돈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ppbn@news1.kr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량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배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t. 5 min / Ladislaw St. 10 min / Newton St. 20 min
E-mail: eunautobody@yahoo.com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EA & NY) - BOAAB - GDT - LMS AP
MA REALTOR® - E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특수주택과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대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통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각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지성 항소심 열린다, 반격의 기적 일어날까

(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지성은 항소심에서 반격할 수 있을까. 7일 방송되는 SBS 월화드라마 '피고인' 6화에서는 박정우(지성 분)와 서은혜(권유리 분)가 항소심 공판을 맞이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지난 방송에서 박정우는 박봉구, 벨소리에 이어 16K라는 단서를 획득한 뒤 16K라는 단서가 딸 하연(신린아 분)의 몸무게를 뜻하는 16K(g)였음을 깨닫고 절규했다.

서은혜는 박정우를 믿어준 장모 오정희(성병숙 분)와 수사관 고동윤(이신성 분)을 찾아가 항소에 보탬이 될만한 단서 찾기에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박정우가 수감 전 장모에게 남긴 쪽지를 손에 넣게 되며 검찰 내에서 유일하게 박정우의 편인 최대홍(박호산 분) 부장의 도움을 받아 결정적 단서를 얻는다. 담당 검사인 강준혁(오창석 분)은 비장의

카드를 뽑아든다. UN 법무협력관 파견을 앞둔 강준혁은 배후에 차명그룹 차선호(실제 차민호/엄기준 분)가 있음을 알게 되지만 냉정한 현실을 깨닫고 침묵한다. 양측이 전략을 갖고 있는 만큼 항소심 재판은 반전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승기를 잡기 위해 각각 무기를 꺼내들면서 예측불허한 전개로 이어갈 예정이다. ppbn@news1.kr

티보플레이 2월 1째주 시청률 BEST10

1	MBC	불어라 미풍아
2	KBS	TV소설(저 하늘의 태양이)
3	KBS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4	SBS	사랑은 방울방울
5	SBS	사임당 빛의 일기
6	MBC	행복을 주는 사람
7	KBS	빛나라 은수
8	MBC	황금주머니
9	MBC	언제나 봄날
10	SBS	피고인

티보플레이 2월 1째주 신규 방송

1	CJ E&M	버저버터
2	CJ E&M	내일 그대와

티보플레이 2월 1째주 최신 영화

1	마스터	이병헌, 강동원
---	-----	----------

'월계수' 라미란은 매력 부자 #걸크러쉬 #애교 #내조

(서울=뉴스1스타) 김나희 기자 = 배우 라미란이 무한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한층 더 사로잡았다. 라미란은 최근 방송 중인 KBS2 주말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극본 구현숙/ 연출 황인혁)에서 역척스럽지만 때로는 남편을 향한 순정을 간직한 복선녀로 분해 활약을 펼치고 있다. 극중 라미란(복선녀 역)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한 집에 사는 이웃의 일도 자신의 일처럼 앞장서서 해결할 만큼 당찬 여장부 캐릭터다. 답답한 상황 속 걸크러쉬 매력으로 시원한 한방을 날릴 계획이다. nahee126@news1.kr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로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향집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보스톤 한인 야구리그 2017 신입선수 모집!

The 2017 BKBL Draft is set for Saturday, February 25

Beginners to Advance level

Welcome to tryout~

일시 : 2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장소 : 홈페이지 참조



www.BostonKBL.info

신영의 **세상 스케치**

583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존재하고 존재가 되어 가기 위한 도구

삶이 분주할수록 무엇인가 허전하고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것은 조금 더 앞으로 조금만 더 위로 오르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에서 일어난다. 우리는 개인의 생각 속에 더불어(함께)라는 지극히 평범한 단어 하나를 가슴 깊이 담을 수 있다면 욕심을 희망으로 욕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것은 개인적인 욕심에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더불어 살며 서로 부대끼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경험을 통해서 더 깊고 높고 넓은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은 뒤를 돌아볼 겨를 없이 이미 저만치 발걸음이 앞서 가 있다. 바쁜 삶에서 여유란 찾아볼 수도 없을뿐더러 시간 많은 이들이나 누리는 사치품 같은 느낌일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렇지만 한 번쯤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쉬 없이 빠른 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그 방향과 목적지는 진정 어디를 향하고 어디인

가. 그렇다면 그 방향을 따라 목적지에 도달했다면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또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나의 존재를 생각해볼 사이 없이 시간의 초침은 짹짹이며 과거의 시간을 만들고 세월이란 나이트를 돌려간다. 나는 지금 어디쯤에서 있는 것일까.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 사이의 정해지지 않은 시간 속에서 말이다. 그렇지만 거역할 수 없는 사실 속 진실 하나는 언젠가 나는 죽는다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를 의식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또한 그것을 인식할 때만이 나 자신의 삶의 의미는 달라질 것이며 그 의미의 깊이와 너비의 폭은 광활해질 것이다. 그래서 바쁜 속에서 잠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까닭이다.

옛날부터 교회의 목사님을 모시고 성경 공부 시간이 시작되었다. 교재는 유진 피터슨의 <응답하는 기도>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책장을 넘기며 서문에서 만난 글귀가 마음에 닿았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는 도구가 필요하며 인간 고유의 모든 행동에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렇게 성경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가만히 나의 소소한 일상을 돌아보니 이미 그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구 중에서도 언어로 만들어진 도구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에 놀라고 말았다.

"기도는 도구이지만 한 가지 설명해야 할 것이 있다. 기도는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존재하고(Being) 존재가 되어 가기(Becoming) 위한 도구다. 외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도구들(예를 들어, 카펫을 청소하기 위한 기계)과 무엇인가 얻게 하는 도구들(예를 들어 정보를 얻기 위한 컴퓨터)을 끊임없이 만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잘 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되고 또한 인간이 되어 갈 수 있게 해주는 도구는 그렇게 쉽게 구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시대를 무엇보다도 기술의 시대라고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인간 존재의 가장 큰 영역에는 기술이 매우 빈약한 상태이다. 오늘날 우리가 자랑하는

기술은 인간의 외적 조건의 경계까지만 사용되고 있고, 따라서 인간 내면의 더 넓은 영역은 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적절한 도구(기술)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내면 세계 깊이 탐험해 들어가지 못한다. 혹 탐험한다 해도 그리 멀리 가지 못한다. 그래서 인생은 바다와 광야 사이의 경계에만 머물러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얻는 매우 한정된 능력만을 발휘하고 살게 된다."

그렇다. 우리는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만족해하지 못한다. 또 다른 그 무엇을 찾고자 달려가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서 만족해하고 만족할까. 그것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인식하고 나 자신은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며 나의 존재함 자체로 감사의 마음이 차오르는 것이다. 지금 내가 가진 그 어떤 무엇이 아닌 지금 여기에서 존재하는 나와 존재해가고 있는 나로 이미 충분한 것이다. 그 존재로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가 나의 기도인 것이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역전逆轉의 명수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2002년 서울 월드컵때이다. 수도원 수녀님이 말했다. 이렇게 재미있는 걸 모르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수녀님은 사회와 동떨어져 수도원안에서만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월드컵 축구경기는 시청했던 모양이다. 하긴 교도소에서 절에서도 월드컵은 봐야했다. 십수년이 지난 지금도 생각하면 짜릿하다.

역전逆轉의 명수. 군산상고에게 붙여진 별명이다. 아직도 한국프로야구가 출범하기 전이다. 고교야구가 한창 인기였다. 쟁쟁한 고교야구 명문들이 있었다. 그중에 군산상고는 유별났다. '역전의 명수' 였기 때문이다. 큰 점수차로 지고 있을 적에도 한방에 계임을 뒤집어 버렸다. 스포츠 경기중, 막판 역전승이 가장 아찔하다. 이긴다는 보장만 있다면 역전승처

럼 재미있는 건 없다는 말이다. 역전패 당하는 쪽에는 위궤양이 퍼진다. 그것도 급성이다. 이번 슈퍼볼 다음날이었다. 애틀랜타 지역 어린이들에게 괴질병이 퍼졌다. 'Falcon Depression.' 많은 아이들이 등교시간을 놓쳤다고 했다.

슈퍼볼 데이 저녁이었다. 들던 중계방송을 껐다. 전반전을 마친 다음이다. 이미 전세戰勢는 한참 기울었다. 아쉬움만 가득했다. 두통이 밀려오는 듯 했다. 그래도 브래디는 최고의 선수라고 혼자 위로했다. 한 시간이나 지났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분명, 28-3인가 있었는데, 28-28. 동점이다. 내가 잘못봤나. 세기의 사건이 일어났던 거다. 20여 점 차이를 동점으로 만들었다. 그것도 수십 초

를 남기고 말이다. 이제 연장전으로 들어갔다. 몇 분만에 다시 터치다운!! 짜릿한 역전승. 2년 전, 슈퍼볼에서도 역전승이었다. 이번에 다시 뒤집어 이겼다. 패트리엇츠이 역전의 명수되었다.

운도 실력이라 했다. 연장전에선 코인 토스도 한뉘했다. 선제 공격권을 얻어낸 것이다. 하긴, 이미 모멘텀은 우리쪽으로 넘어왔다. 극한 상황에서 기록과 통계는 그저 단순한 숫자놀음이다. 상황을 지배하는 건 멘탈이나 정신력이다. 침착함, 빠른 판단,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많다. 쿼터백 브래디는 웬만한건 다 갖췄다. 그런 그가 운까지 불러들였다. 마이클 조던마냥 화려하지는 않다. 하지만 그는 노련함에 더해 대단한 연습벨레라 들었다. 쉬없이 준비하고 있었던 거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하늘은 스스

로 돕는자를 돕는다.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벤자민 프랭클린)
한국의 정치판엔 벼랑끝 전술이란게 있다. 막판에 몰렸을 적에 한방에 되치기 뒤집기로 넘겨 버리는거다. 지고 있는 경기를 한 방에 전세를 역전시키는 것과 같다. 이번엔 역전이 가능할까. 벨리첵 패트리엇츠 감독이 선수들에게 자주 하는 주문이 있다. 'Do your job'. 정치에도 연장전이 있던가?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마태 25:4)

1. 내 모교도 군산상고 한테 두어번 졌다. 그러니 내가 그 팀을 좋아 할리가 없다.
2. 중학교 영어 참고서에서 처음 봤다. 스스로 돕는 자라니. 도대체 이진 무슨 말인가? 이해 할 수 없었다. 한참 세월이 흘러서야 말 뜻을 어렴풋이 눈치챘다.



백성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비즈니스의 공정성 문제

가끔 주위에서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라고 불평하는 소리를 듣는다. 불공평하고 불평등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평등은 기본권이(Right)의 균등함을 말하고 공평은 결과의 균등함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직원을 채용할 경우 나이, 피부색, 결혼여부, 종교에 관계없이 응시할 기회를 주는 것은 평등이고, 고학력에 풍부한 경험의 지원자가 떨어지고 무경력자가 채용되면 불공평하다고 할 수가 있다. 비즈니스는 불공평하다. 아니,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평등은 중시되어도 공평하지는 않을 경우가 많다. 보스턴은 Mass Pike에 Ezpass를 설치했다.

모든 사람들이 출근길에 교통체증에 시달려도 돈이 있으면 Mass Pike를 이용하여 좀 더 편히 출퇴근이 가능하다. 쥐꼬리 같은 월급 받으려고 낡은 중고차로 주차장을 연상시키는 딱 막힌 도로에서 스트레스 팍팍 받고 있는데, 바로 옆 차선에서는 고급 승용차가 씩씩 지나간다. 이것이 진정한 자본주의 사회의 스냅사진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은 진정한 자본주의 사회다. 거의 모든 문제는 자본(돈)이 해결책이 되어줄 수가 있다. 사랑은 돈으로 해결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돈 많은 상대에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다.

개인의 자본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부동산에 연관된 일을 하다보면 셀러와 바이어뿐 아니라 에이전트들끼리, 용자는 행, 세틀먼트 회사까지 얽히고 설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대부분 문제의 해결책은 항상 돈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카펫이 낡았다, 지붕을 고쳐야 한다, 보일러가 낡았다... 바이어의 모든 지적은 셀러에게 가격을 깎아 달라는 언어이다.

만일 바이어가 주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가격흥정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주택은 마음에 들지만 더 싸게 사고 싶은 것이다. 셀러가 "As is"로 집을 고쳐주지 않고 팔겠다고 하는 것도, 주택가격을 깎아주지 않겠다는 언어이다. 은행은 주택 감정가를 확인하고, 이자율을 책정

하고, 용자자격을 심사하는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에는 정이 없다. 그저 이득과 손해가 있을 뿐이다. 가끔 손님이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라고 불공평하다고 항의 할 때가 있다. 사람들은 그럴수가 없어도 비즈니스는 그럴수가 있다. 엔론(Enron)의 최고경영진은 회사가 망하기 전에 자신들의 주식을 마구 팔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전 직원간담회를 개최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Enron주식을 더 매입하라고 독촉했다.

최근 일부 거래에서 셀러들을 속상하게 하는 경우가 목격되고 있다. 뜨거워진 가격경쟁에 일부 바이어들이 자신들이 지불할 생각도 없는 높은 가격으로 오퍼를 넣는다. 그리고 은행에서 감정이 오퍼 가격보다 낮게 나오기 기대한다. 만일 감정가격이 계약가격보다 낮게 나오면 다시 가격을 흥정하고, 감정가격이 충분히 나오면 다른 이유를 만들어서 계약을 파기한 다. 이런 연유로 많은 셀러들이 주택을 다

시 시장에 내놓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셀러들이 "왜 그 가격에 살 생각도 없으면서 오퍼를 넣나요? 참 불공평해요"라고 항의를 한다. 그러나 바이어의 입장에서 최고의 전략인 것이다. 비즈니스에 공정성이 유지되는 세상이 올 수 있을까?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65 화랑세기花郎世紀, 5세 풍월주風月主 사다함斯多唵(17)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4세 풍월주 이화랑에 이어서 화랑도의 5세 풍월주가 된 사다함은 부제로 자신의 이복동생인 설원랑을 임명하였다. 그는 당시 13세였다. 설원랑은 사다함의 어머니 금진낭주가 구리지(사다함의 아버지)가 죽은 후 맞은 남자, 즉 설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설원랑薛原郎은 '설화랑'으로 개명하고 나중에 7세 풍월주가 된다. 그리고 이 설성마저 전쟁터에서 죽은 후 금진은 아들 사다함의 부하인 무관랑을 침실로 불러드렸다. 무관랑은 미천한 신분(191)이지만 인망이 있어서 많은 사도私徒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는 사다함이 풍월주가 될 무렵 사다함 밑으로 오길 자청하였다. 사다함보다 나이가 많고 걸출한 인물이었기에 사다함이 예를 갖추어 무리에 받아드렸다. 무관랑은 사다함의 부하이면서 친구였다. 그것도 그냥 '봉우'가 아닌 죽음도 함께하자는 '사우死友'의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가야정벌의 전장을 함께 누볐다.

한편 색에 빠진 금진은 무관랑을 매일 침실로 불렀고, 이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뇌하던 무관랑은 공적으로는 상관이며 사적으로는 친구이자 통정하는 금진의 아들인 화랑도의 풍월주 사다함에게 심경을 밝히고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사다함은 무관랑의 탓이 아니고 어머

니의 탓이라면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통을 도우며 함께 금진의 처소를 출입하였다. 이에 많은 낭도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결국 무관랑은 금진의 처소로부터 밤에 도망쳐 궁의 담장을 넘다가 구지에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리고 무관랑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 사우를 잃은 사다함이 식음을 전폐하고 애통해하다가 7일만에 죽었다. 그는 풍월주가 되기 전부터 국선國仙이라고 불릴만큼 따르는 낭도들이 많았는데 하루는 지소태후가 불러서, 그 비결을 물으니 "사람을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 뿐입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참으로 친구의 몸을 자신의 몸 같이 또 친구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과 같이 하였다.

이 '미천한 한 화랑도의 죽음' 사건이 일제강점기 가운데 박창화가 필사한 화랑세기가 위작이 아니고 진본임을 증명해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있다(물론 필사본 내용에는 수많은 사실史實이 위작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리고 월성이 여느 성과 다른 형태의 구지/해지를 가지고 있었던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고대의 성곽들은 예외없이 성벽 밖에 도랑이나 연못을 파서 적의 침입을 막았다. 이것을 해자壕字라고 한다. 물론 산성이 아닌 평지나 구릉의 성들은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런데 월성으로 확실한 성벽을 뛰어넘다가

크게 다쳐 죽은 무관랑은 '구지溝池'로 떨어졌다. 즉 화랑세기에 해자가 아닌 구지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해자는 보통 성벽이 허물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바깥 성벽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서 뚫었다(고구려의 안학궁 또는 중국의 낙양성 등). 그런데 월성의 구지는 발굴결과(192) 성곽 외벽 하단부에 바로 붙어서 조성되어 있다. 이것이 또한 독특한 점이다. 그래서 무관랑이 성벽을 뛰어넘었을때 성벽하단부 맨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물이 가득한 구지로 떨어진 것이다. 즉 월성 바깥의 해자는 '도랑이나 연못'이 아니라 '도랑과 연못'으로 조성된 구지였다. 그럼 왜 월성의 해자는 '구지'로 조성했을까?

191) 우리는 그간 삼국사기 등 기존 사서의 기록이나 또는 조금 인용된 화랑세기의 내용으로 신라의 화랑들은 모두가 귀족의 자제들로만 구성된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금진의 남자들이 설성이나 무관랑의 경우를 보면, 미천한 신분도 화랑의 낭두(중상급의 지휘자)가 되어서 자신들 밑에 많은 화랑도를 거느렸음을 볼 수 있다. 즉 화랑도는 귀족의 자식들뿐만이 아니라 평민의 자식들도 될 수 있었다. 무관랑의 경우는 얼마나 낮은 신분이었는지의 묘사는 없지만 '미천微賤(보잘것 없이 낮은)한 신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설성의 경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금진의 아들들이 의무義父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살고 있는 집(사액과 본장 - 정확한 해독이 어렵지만 본장은 본집, 사액은 임금이 하사한 집일 가능성이 있다)에 들어가지 않았다.

192) 화랑세기는 김대문이 8세기 초 성덕왕 재위기간(702~737년)에 저술하였다. 그리고 박창화는 일제 강점기에 화랑세기를 필사했다. 박창화는 해자가 있었을거라고 짐작할 수는 있었어도 '구지'의 유무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었다. 월성의 해자 확인을 위한 발굴조사는 1984년에야 시작되었다. 출토된 유물과 유적을 분석한 결과 월성의 해자는 신라가 삼국(삼한)을 통일한 7세기 말에 그 기능을 이미 상실하였다. 즉 외적의 침입 위협성이 사라지고 건물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매립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서에는 '구지'라는 용어가 나오질 않고 다만 화랑세기에서 월성의 해자를 묘사할 때만 나온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웹사이트(www.gch.go.kr)에 가서 '월성 해자발굴조사보고서 I' (1990), II(고찰, 2006)를 보면 지금까지 발굴한 내용을 상세하게 볼 수 있다(방대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55-911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병원
보건복지부 국가 건강검진 기관 평가 S등급 병원(최고 등급)

H+ 양지병원

새병원 완공과 함께 선진종합병원으로 도약한 H+ 양지병원은 350 병상 확충과 최첨단 의료장비 구비, 우수전문의 보강으로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 양지병원

151-852 서울시 관악구 서원동 10-715



입원 종합검진

입원 종합검진 기본항목
1. 이학적 검사 (신체계측, BMI, 체중, 허리 둘레)
2. 흉부 검사 (순음형성 검사)
3. 골밀도 검사 (중년여성 검사)
4. 임프식자 검사 (간염, 대상포, 흉선염, 난소암, 전립선암)
5. 심폐기능 검사 (흉부 X-ray, ECG, 노력성 폐활량)
6. 모 검사 10종
7. 체지방 검사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촬영술)
9. 소변기 검사 (위 수면 내시경)
10. 피부 초음파 검사 (간염, 황달, 음 종괴)
11. 문진 및 진찰의 상담

80만원 - 65만원
남: 65만원 / 여: 75만원

남성 포함	여성 포함
1. 흉부 (폐) CT	
2. 전립선 초음파	
3. 골밀도 검사	
4. 대장내시경수술	

VIP 입원 종합검진

VIP 종합검진 기본항목
1. 가동 검사 (신체계측, BMI, 체중, 허리 둘레)
2. 흉부 검사 (순음형성 검사)
3. 골밀도 검사 (중년여성 검사)
4. 임프식자 검사 (간염, 대상포, 흉선염, 난소암, 전립선암)
5. 심폐기능 검사 (흉부 X-ray, ECG, 노력성 폐활량)
6. 모 검사 10종
7. 체지방 검사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촬영술)
9. 소변기 검사 (위 수면 내시경)
10. 피부 초음파 검사 (간염, 황달, 음 종괴)
11. 문진 및 진찰의 상담

230만원 - 240만원
남: 215만원 / 여: 225만원

남성 포함	여성 포함
1. 뇌 MRA	
2. 뇌 MRI	
3. 전신양력 CT	
4. 흉부 (폐) CT	
5. 심전 초음파	
6. 간장초음파	
7. 경동맥 초음파	
8. 전립선 초음파	
9. 골밀도 검사	
10. 대장내시경수술	

당일 종합검진

당일 종합검진 기본항목
1. 이학적 검사 (신체계측, BMI, 체중, 허리 둘레)
2. 흉부 검사 (순음형성 검사) & 할리 검사 (중년여성 검사)
4. 임프식자 검사 (간염, 대상포, 흉선염, 난소암, 전립선암)
5. 심폐기능 검사 (흉부 X-ray, ECG, 노력성 폐활량)
6. 모 검사 10종
7. 체지방 검사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촬영술)
9. 소변기 검사 (위 수면 내시경)
10. 피부 초음파 검사 (간염, 황달, 음 종괴)
11. 문진 및 진찰의 상담

55만원 - 65만원
남: 50만원 / 여: 60만원

남성 포함	여성 포함
1. 흉부 (폐) CT	
2. 전립선 초음파	
3. 골밀도 검사	

VVIP 입원 종합검진

VIP 종합검진 기본항목 & 추가항목
FET CT
복부초음파 + 비타인D & 콜로콜 + 호르몬검사(남성혈중총, 중성지방)

★ 검사시간 및 혜택

- 당일 종합검진: 8:30am~12:30pm (목요일)
- 당일 종합검진: 3pm~입원2일째 1pm(1박 2일) 1인실(비즈니스급, 스위트)
- VIP 종합검진: 2pm~입원2일째 1pm(1박2일) 1인실(비즈니스급, 스위트) / 공용욕실
- VVIP 종합검진: 2pm~입원3일째 1pm(2박3일) 특실(비즈니스급, 스위트) / 공용욕실

남: 350만원 / 여: 370만원

VVIP, VIP 종합검진 고객: 픽업서비스 제공

(*) 입원비용 포함: 입원비용 도약시간 오후 5시30분까지 제공
중 안소음방역 시설: 시애틀의 내외 환자에게서만 직접 가능
대우, 노, 김포형 객실 전용 특가는



해외의료사업팀장 ★ 무료 전화(Call for Free) ★
김수남 1-844-DO HURAM (1-844-364-8726)
카카오톡: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미국내 상담문의
보스톤코리아
Tel. 617-955-9112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人

同 (동)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同役)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나라.”
 “For we are God’s fellow workers; you are God’s field, God’s building.” - 고린도 전서 3:9.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 간다는 것은 사람들과 ‘함께’ 만이 아니고 하나님, 곧 사람들을 만들어 내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동고·동낙(同苦同樂)해야 한다.

이 천직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된 인간사이의 변치 않는 관계인데.

이 관계가 순조로울 때 그 조직이나 사회가 평화롭게 운영되게 되어있다.

한국이 시끄러운 것은 한마디로 이 동(同)이 “하나님과 물론 사람들 사이에도 깨어졌다는 증거” 이다.

서울의 야(野) 3당 대표들이 국회식당에서 8일 아침에 회동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탄핵”과 “특검수사 연장을 촉구” 하는 일에 합의했다.

헌법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정치권이 “힘”으로 압박하는 것이 적법한가? 하는 숙제를 던지면서.

양상선 추미애(더불어 민주당) 대표, 박지원(국민의당) 대표, 심상정(정의당) 대표 등이 “박근혜 대통령 조기탄핵”과 “특검수사 연장촉구”에 의견을 같이 했다.

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탄핵”을 위한 공조(共助)를 강권하고 나온데는 박 대통령 현재대리인의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등 심판결정이 연기되려는 기류가 느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원로정치인은 “의회 과반을 차지하는 야 3당이 ‘힘의 논리’로 현재(憲裁)를 압박하려는 시도”라며 “잘 못되면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가 독립기관인 현재를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여론의 역풍(逆風)을 맞을 수도 있다”고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촛불을 더 높이 들어 (박 대통령의) 탄핵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촛불 군중수로 법리 검토를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치(法治)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이 같은 ‘선동’을 노골화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을까?

민중, 국민, 정의당 등 야 3당 대표는 8일 긴급회동을 갖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최종결정을 내리라고 압박했다.

원내 제1야당의 유력 대선주자와 야당 대표들이 공개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한 것이다.

현재의 결정에 대한 승복은 대한민국의 국위를 한단계 높인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온 나라가 정치적 내전(內戰)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도 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연설에서 “모든 정당이 다함께 현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약속하자”고 했다.

“모든 대선주자(走者)가 현재 판결 승복을 공개선언(公開宣言)해야 한다. 하지 않는 주자는 반법치, 반민주로 국민이 정치권에서 퇴출(退出)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박근혜 대통령 심판과 관련 지금까지의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22일까지 예정된 탄핵심판 증인신문기일 외에 추가 일정을 잡지 않을 것으로 보여 탄핵 심판의 결론이 3월 초에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정미 현재소장 권한대행은 9일 열린 탄핵심판 12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쌍방대리인들은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을 23일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현재엔 각 정당이 자기를 지지층을 선동해 정치적 압력을 가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증인 신문일정이 확정돼 현재 결정이 3월

에 내려질 가능성이 내다보이면서 일고 있는 현상이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촛불을 더 높이 들어 탄핵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 군중수로 법리 검토를 바꿀 수 있다는 계산이다.

법치 수호를 사명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행동으로 적합한 것인지는 국민의 투표가 말할 것이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野) 3당 대표는 긴급회동을 갖고 이정미 현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최종결정을 내리라고 압박했다.

원내 제1당의 유력대선주자와 야당 대표들이 공개적으로 현재를 협박한 것.

새누리당에선 지난 주말 열린 태극기집회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인제 전 최고위원, 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전 지사 등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과 시위를 함께하며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새누리당 일부 인사는 앞으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최순실 사태에 책임 있는 정당이 거리 투쟁을 하겠다는 뜻.

각 정당이 현재의 ‘탄핵인용(認容)설’, ‘탄핵기각(棄却)설’을 언급하며 지지층 내부의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다.

큰 문제는 탄핵심판 결과 발표 후에 일어날 일이다. 탄핵이 되든지, 안 되든지 심각한 반발이 일 것이다.

정당이 현재를 이렇게 협박하고 압박하면 그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다. 설사 정권을 잡더라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해 동화(同

化)를 비는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

同동 : 共也 공야 - 한 가지 동.

이 동은 ① 同경: 遠界 원계 - 멀 경.과 ② 同味 = 旨 지 : 味也 미야 : 맛있을지. 가 합성된 글자. ③ 同名는 匕비 : 劍名 검명 - 1首 신수 - 비수비 + 日왈 = 語也 어야 : 가로 왈(曰) : 풀면 “말씀(하나님의) 위에 얹힌 칼”이란 뜻.

또는 엔진이 ‘하나님 말씀의 칼’이란 뜻을 담고 있다.

멀리 가는 “원계(門)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를 표시하며 “그런 길 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칼’이 동행(同行)한다 “는 뜻.

쉽게 풀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평생이 하나님 창조주께서 동행(同行)해 주신다. 죽음 이후에 동행여부는 하나님의 대행자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를 믿는 지 여부와 관계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and whoever lives by believing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 요한복음 11:25, 26.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개적인 제안이자 권유를 받아들이면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天國)에서 영생(永生)한다는 것 !!

해서 우리는 태어나서 이 세상 떠나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동행(同行)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꼭 잡는 것.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매일 기도하며.....

HANKOOK AUTOBODY INC. 978.664.2321

한국말 문의 전화 가능!!



- 무료 견적서
- Auto body 사고 수리 및 페인트
- Insurance 수리 및 Deductible 세이브
- 프레임 스트레이너 머신 및 베인투스 완비







영업 시간

M-F: 8:00~5:00
SAT: 8:00~12:00

-경백-

- 현대 자동차 서비스 공제 사업(대량용 남부 사업소 판공 도장부 근무)
- Herb chamber 브레이크 트럭 콜라본 센터 근무(M-benz, Bmw, Mini, Lexus, Ford)
- Bernadi Boston body shop 근무 (Honda, Acura, Auk, Toyota)
- Tansky Toyota 근무 (모든 Toyota 차량)
- Calvin's auto body 운영
- 20년 Auto body work!

126 Main St Unit 10, North Reading MA 01864 | Tel:978.664.2321, Fax:978.664.2314

E-mail:autobody.hk@gamil.com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72) 상속 트러스트의 이해

사랑하는 배우자와 오랜 세월을 함께 한 후 한 사람이 먼저 떠나면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자가 사회생활하며 돈을 벌습니다. 이 뜻은 은퇴자금이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배우자가 상속받아서 남은 생을 살아야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 남자가 하늘나라로 먼저 갑니다. 남은 배우자는 혼자 남는 것도 두려운데 상속, 투자, 생활비, 등을 생각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전에 해보지 않았던 생소한 일들이라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주위 친지들이 트러스트(Trust)가 필요하다고 충고하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많은 사람이 트러스트를 형성하면 상속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트러스트

는 하나의 새로운 객체(Legal Entity)를 만들어서 돈이 머무는 장소를 형성하는 것뿐입니다. 상속받는 돈이 트러스트로 가면 누군가가 그 돈을 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트러스티(Trustee)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트러스티는 혼자된 배우자, 자식, 친지, 재정설계사, 등 아무나 설정할 수 있지만,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금융자산은 상속수혜자(Beneficiary)를 설정하면 상속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남편의 돈을 일차 수혜자로 아내(Primary Beneficiary) 이름으로 그리고 이차 수혜자는 자식들(Secundary Beneficiary) 이름으로 설정하면 프로베이트(Probate)를 걸치지 않고 바로 상속이 됩니다.

트러스트나 상속수혜자는 상속하는 자산이 누구한테 가는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산이 트러스트로 가서 트러스티(Trustee)가 혼자 된 배우자면 배우자 돈이 됩니다. 상속수혜자를 배우자로 설정하면 이 역시 배우자

돈이 됩니다. 그렇다면 트러스트와 상속수혜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를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나 상속수혜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를 변호사에게 묻는다면 일반적으로 트러스트를 추천합니다. 그래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는 변호사나 재정설계사는 트러스트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결정은 사실 맞고 틀리고가 아닙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 점(Better)이 있느냐는 차이점입니다.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이 은퇴자금에서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를 받고 있다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가정합니다. 아내가 상속수혜자로 설정되었다면 전 자산을 상속받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RMD를 계속 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내 이름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아내 나이가 70.5가 되면 기대수명(Uniform Lifetime Table)도표에 의해서

RMD를 받습니다. 간단한 계산으로 처음 찾아야 하는 액수는 상속자산의 4% 정도입니다.

은퇴자산에서 돈을 찾으면 그해 수입이 되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RMD로 찾은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매년 찾는 액수는 죽을 때까지 분할해서 받기에 세금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는 기대수명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뜻은 적용되는 세금이 상속수혜자와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경우에는 상속받은 전 자산을 짧은 기간 내에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세금을 일시에 내야 하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상속을 간단하기 위해서 설정한 트러스트가 오히려 큰 부담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주위 친지들의 의견을 떠나서 믿을 수 있는 변호사, 재정설계사, 회계사와 함께 의논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2016년 세금신고 안내 개인소득세 신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2) - 미성년자의 불로소득(Unearned Income)에 대한 과세 - Kiddie Tax

매년 \$30,000의 임대소득이 있는 김한국씨는 절세방법을 고민하던 중 임대자산을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를 적용받아 증여세 부담 없이 임대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자녀가 내도록 하면, 세금이 자녀의 낮은 세율로 계산될 것이므로 꽤 큰 금액을 절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에 자녀의 소득이 일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자녀의 명의로 세금신고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는 자녀의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위 김한국씨가 생각한 절세방법을 살펴봅니다.

증여세 부담없이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점은 일리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면 평생 \$5,450,000까지는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 없이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 아니면 양도 후 현금 증여가 유리한지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자녀의 낮은 세율로 세금이 계산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Kiddie Tax라고?

미국 세법은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부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시켜 가족전체의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방지하고자 Kiddie Tax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Kiddie Tax란 미성년 자녀의 불로소득(Unearned Income)이 일정액(\$2,100)을 초과하면, 미성년자녀의 세금계산시 \$2,100를 초과한 Unearned Income에 대해 자녀의 세율이 아닌 부모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이 경우 자녀의 세율로 계산한 세금이 더 크면 자녀의 세율로 계산함).

여기서 Kiddie Tax가 적용되는 Unearned Income이란, 일반적으로 투자소득(Investment Income)이라 불리는 이자소득(Interest), 배당소득(Dividend), 양도소득(Capital gains), 임대수입(Rent), 로열티, 연금수입 등을 말합니다.

누가 Kiddie Tax규정을 적용받나?

이 규정은 \$2,100을 초과한 Unearned Income(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는 미성년 자녀에게 적용되는데, 이를 요약하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만 자녀가 결혼하여 배우자와 부부합산신고를 한 경우와 연도말에 생존한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이(연도말)	적용여부
18세 미만	항상 적용
18세	자녀의 Earned Income이 본인 생계비의 50%이하인 경우
19 ~ 23세	학생이며, Earned Income이 본인 생계비의 50%이하인 경우
23세 이상	적용하지 않음

위의 표를 보면, 23세 이상인 자녀에게는 Kiddie Tax가 적용되지 아니며, 학생신분인 19세에서 23세 까지의 자녀는 그의 근로소득(Earned Income)규모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Kiddie Tax 적용대상 소득은?

Kiddie Tax가 적용되는 소득은 Unearned Income중 \$2,100을 초과하는 소득에 한합니다. 따라서 Unearned Income이더라도 \$2,100까지는 Kiddie Tax규정이 적용되지 아니며, 또한 Earned Income(근로소득 등)의 경우는 그 금액에 상관없이 Kiddie Tax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7세인 자녀의 소득이 이자소득 \$2,500과 배당소득 \$1,000 그리고 근로소득 \$3,000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Unearned Income \$3,500(= 이자소득 \$2,500과 배당소득 \$1,000)중 \$2,100을 초과한 \$1,400만이 Kiddie Tax대상이며, Unearned Income 중 \$2,100과 근로소득 \$3,000은 Kiddie Tax 대상이 아닙니다.

Kiddie Tax 계산방법은?

Kiddie Tax에 대한 세금계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① 첫째: 자녀의 소득을 별도로 신고하는 방법(Form 8615)과

② 둘째: 자녀의 Unearned Income을 부모의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방법(Form 8814)이 있습니다.

위 부 전제 방법, 즉 부모가 자녀의 소득을 자신의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① 자녀의 소득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Capital Gain Distributions와 Alaska Permanent Fund Dividend 포함)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 ② 자녀의 총소득(Gross Income)이 \$10,500 미만이어야 한다.
- ③ 과거의 세금과다납부액이 없어야 한다.
- ④ 중간예납세금이나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 중 Earned Income이 있거나 자녀의 총소득이 \$10,500을 초과하면, 반드시 자녀의 명의로 별도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2,100을 초과한 Unearned Income에 대해서는 부모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결론

결국 위 김 한국씨의 이번 절세계획은 자녀가 Kiddie Tax 적용대상인지 아닌지(즉, 자녀의 나이와 자녀의 소득규모 등)에 따라 효과를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MW LEE, CPA P.C.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회계·세무에 대한 전문 지식과 직·간접 경험을 통해 축적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양국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tomwlee1125@gmail.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 소식 (2017년 2월 첫째주)

●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

계속해서 뜨거웠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이번 주로 접어들면서 진정세로 돌아선 듯 합니다.

먼저 무슬림 7개국 국적자들의 입국을 막는 행정명령은 연방법원의 행정명령의 실행을 일시 정지시킴으로써 일단 이들의 입국이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명령의 정당성 즉, 이들 국적자들의 입국이 미국에 어떻게 해가 되는지를 밝히려는 의견과 이번 중지 명령을 신청한 주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가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법원에 고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가 어찌됐던 반이민 행정명령이 대통령 단독적으로 이행되기 힘들다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확실히 각인시킨 듯한 점은 반갑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추측들이 난무했던 추가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윤곽도 잡히는 듯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앞으로 이민의 틀을 흔들 반이민 행정명령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행정명령 (최근 수년간 미국에 적대적인 입장이기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소국들만을 대상으로 한 반이민 행정명령이었지만) 이 당사자 국가보다는 오히려 미국내에서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다시말하면, 앞으로 추측되는 H 비자나 영주권 등에 대한 행정명령은 이보다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되리란 추론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트럼프 행정부의 수뇌들은 앞으로의 반이민 행정명령은 정치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거란 계산을 분명히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깝게는 H 비자, 영주권, 시민권 등에 대한 반이민적 정책은 적어도 당분간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준비하시던 대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증거하는 일들이 현재 여겨지거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H 비자에 대한 이민국과 노동부의 발표 등은 예년과 아무 다름이 없습니다. 예를들면 이민국 공식홈페이지의 H 페이지도 어떠한 변화없이 계속 똑같은 내용인 기재되고 있습니다. 매년 초 발표되는 전년도 H 에 대한 통계도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H 비자를 설명하고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이민국 페이지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최근 몇몇 언론에서 발표했던 최저

임금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도 잘못된 해석을 근거해 쓰여진 기사였기 때문에 일반 H 신청자들에게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한해 H 비자를 도매금으로 수백에서 수천개씩 하는 몇몇 대형 이민펌들도 다시 올해 H 비자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얻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 얻은 결론이겠지요?

영주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여러 매체들이 영주권자들의 해외여행이 제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이민국은 최근 영주권자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주의점을 여러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시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점은 이미 오바마 행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며 이번에 아무런 개정 없이 다시 이민국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느것도 바뀌지 않았으니 영주권자들은 아무 걱정없이 해외여행을 다녀오셔도 됩니다. 영주권자의 해외여행 시 주의점은 아래로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green-card/after-green-card-granted/international-travel-permanent-resident>
 요약하자면, 단기간의 해외여행은 영주

권자의 신분과 재입국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에 실제 영주하고 있는지, 영주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지가 영주권자의 재입국에 가장 큰 심사 대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1년 이상의 여행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허가서를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고 국회도 상/하원에서 모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난 2001년의 245(i) 조항과 같은 신분미비자들을 구제할 방안이 모색되리라 예상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수십년간의 이민개정은 모두 공화당 집권 또는 공화당의 주도아래 이뤄졌습니

다. 앞으로 매주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에 대한 것들에 대해 보스턴 코리아 또는 제 웹사이트를 통해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동요되지 마시기 바라며 특히 H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4월 1일 (올해는 4월 3일) 신청에 차질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영주권 포기서류 (I-407)를 모르고 서명했다면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트럼프의 반이민자 정책으로 불안감이 점점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항공사들이 국제선 영주권자 여행객들에게 “영주권 포기서류 (I-407)” 를 배포했다는 신문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신문 기사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영주권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하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기사내용대로 비행기에서 배포를 했다면 연세가 많으시거나 영어가 편치 않은 영주권자의 경우 실수로라도 작성 가능성이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는 처음있는 일은 아닙니다. 몇 년 전 JFK 공항에서도 공항 이민관이 영주권자에게 적절한 설명 없이 “영주권 포기서류 (I-407)” 를 작성하게 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포기서류 (I-407)” 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영주권 포기 의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강압에 의해 혹은 어떤 서류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작성을 하였고 영주권을 포기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설사 “

영주권 포기 서류 (I-407)” 가 접수되어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철회(Revoke)가 가능합니다. “영주권 포기 서류(I-407)” 가 접수되면 이민국은 약 1년 동안 해당 서류를 처리 후 보관하고 있다가 영주권을 영구 폐기합니다. 따라서 실수로 혹은 어떤 서류인지 모르고 서명을 하였다면 1년 안에 이민 변호사를 찾아 철회 절차를 밟아 영주권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반이민자 정책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는 행정명령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의회의 통과 없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들을 강제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영주권자로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여 시민권 획득 자격을 갖춘 분이시라면 시민권 취득을 서두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시민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사기(Fraud)와 같은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시민권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따는 것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시민권 획득은 약 6-8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만약 불법 체류로 강제 출국 가능성이나 영주권자이지만 재입국이 불가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강제출국이나 재입국 불가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 받는 문의 중에는 만약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미국 내 부동산 및 은행 계좌등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 혹은 친인척들에게 조건부 위임장(Conditional Power of Attorney)를 미리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조건부 위임장은 위임장에 기재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본인 대신 일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입니다.

강제 출국이나 재입국 불가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한 위임장을 미리 써 놓게 되면, 실제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위임장에 지명된 사람이 위임장에서 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계좌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장에 나열해 놓으면, 발생하면 안되었지만, 만약 강제 출국이나 재입국 불가 상황 시 본인이 직접은

행을 찾거나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조건부 위임장을 가진 사람은 은행 계좌를 닫거나 부동산을 매매하여 현금화 한 후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미국 내 재산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러한 권한의 남용을 위해 조건을 확실히 하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미국은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으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트럼프 관련 기사가 발표될 때 마다 기사의 의미와 예상되는 이후 사태에 대해 빠르게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SONGLAWFIRM

송동호 종합로펌 최강 이민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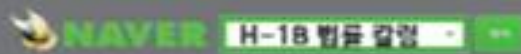
SONG LAW FIRM

ATTORNEYS & COUNSELORS AT LAW



취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확실한 트럼프 시대의 **H-1B**,
송동호 종합로펌이 함께 합니다.

전공별 H-1B 성공전략을 담은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만의 스페셜 칼럼! H-1B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H-1B 가능 전공

Computer Science / Software Engineering
 Information Systems / Technology
 Architecture / Urban Planning & Engineering

Business Administration / Marketing / Accounting
 Hospitality Business / Hotel Management
 JD / LLM / Law School

Art & Design / Fashion Design / Interior Design
 Social Sciences / Sociology / Psychology
 Physical Therapy

👛 기업 고객

국제법
 금융법
 노동 및 고용법
 보험회사 관련 소송
 부동산
 상법 및 M&A

소송
 이민법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지식 재산법
 프랜차이즈법

👤 개인 고객

가정법
 노동 및 고용법
 부동산법
 사고 손해
 상법
 세금, 상속, 유언

소송
 이민법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지식 재산법
 티켓, 지역 법원 관련 업무
 파산

T | 617.489.1327 MAIL@SONGLAWFIRM.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ive,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BELMONT 385 Concord Avenue, Suite 002, Belmont, MA 02478

songlawfirm1

songlawfirm LLC

songlawfirm

SONGLAWFIRM.COM

HQ |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 T 201.461.0031 | F 201.461.0032 | mail@songlawfirm.com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YORK | NEW JERSEY | PENNSYLVANIA | KOREA | CHINA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런드로맷(Laundromat) 상물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킹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1.2M 히바치+스시, 플리커 면허증
좋은 매매가격 \$300,000

보스톤 서쪽 드롭오프+셔츠유닛 연매상 \$85,000 소유자 은퇴 매매가격 \$19,000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플리커 면허증, 대학가 연매상 \$300,000 고급동네

아침/점심 보스톤쪽 주6일 영업 연매상 \$300,000

로드아일랜드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단독건물, 셀러은퇴(건물주)

보스톤 북서쪽 투자상가건물 11유닛, 연수입 \$110,000

보스톤 남쪽 컨비니언스 + 로터리, 연매상 \$900,000 + 로터리 커미션(\$70,000)

체스넛힐 드롭오프, 연매상 \$250,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다운타운 보스톤 컨비니언스 + 델리, 연매상 \$650,000

Beer&Wine 면허증, 주방 확장 가능

뉴햄프셔 동양식당 + 플리커, 연매상 \$3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오프, 연매상 \$155,000 좋은 매매가격 \$65,000

케이프코드 동양식당 연매상 \$160,000 높은 순수익

보스톤 서쪽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600,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셔츠유닛, 연매상 \$99,000 좋은 위치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36,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보스톤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보스톤 Full Plant+드롭, 연매상 \$71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193,000 고급동네, 좋은 렌트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 Beer&Wine 면허증소지, 복권, 매매가격 \$119,000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25,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아카데미 프로그램

1. Weekend Program:

SAT 1, SAT II, AP수업

다년간의 경험의 강사진이 실전 문제와 새로운 문제유형에 따른 수업으로 단기간 고득점 완성

2. Tutoring Program:

학업 과목 개인 과외 알짜배기 강사진 보유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등, 학생에 맞는 최적의 강사를 선정

3. Special Program:

경시대회 준비반

수학경시대회(AMC/AIME), 외국어 경시 대회, 과학 올림피아드를 위한 전문 강사진

2017-2018 고등학교 및 대학교 원서 작업 & 진학 상담

1.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컨설팅

2. 전,현직 입학 담당자와 어드바이저 선생님

프리미엄 가디언 프로그램

1.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와 믿을 수 있는 가디언

2. 아카데미 로드맵 작성으로 학생이 필요한 과목을 집중 공부

3.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및 섬머캠프 활동

Special 섬머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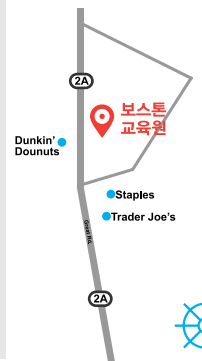
1. 전문적, 체계적 2-4주 보딩 관리

2.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3. 믿을 수 있는 교수진과 다양한 수업 진행

보스톤 교육원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했습니다.

NEW OFFICE LOCATION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bostonedu.org